

[翻譯]

《文心雕龍·辨騷》*

洪潤基**

〈解題〉

《文心雕龍》〈辨騷〉편의 편명의 뜻을 오늘날의 말로 풀이해 보면, ‘〈離騷〉에 대한 분석’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離騷〉는 실제로 屈原의 《楚辭》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것이다.

이 〈辨騷〉편은 《文心雕龍》의 〈原道〉、〈徵聖〉、〈宗經〉、〈正緯〉편 뒤의 제 5번째에 위치하는 있는 편장이다. 〈序志〉편에서는, 《文心雕龍》을 지을 때 〈離騷〉로부터 문학의 變革의 정신을 배웠다고 언급하면서, 〈辨騷〉편을 위의 4편과 더불어 “文之樞紐” 즉 “문학(혹은 《文心雕龍》)의 지도리”라고 일컫고 있으니, 〈辨騷〉편은 《文心雕龍》의 50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편장이라고 할 수 있다.

劉勰은 屈原의 《辨騷》가 유가경전의 내용과 형식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새롭게 변형시켜 새로운 문학양식을 창조해냈다고 생각하였다.

〈辨騷〉편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4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단락은 《辨騷》가 갖는 위대한 문학성이 《詩經》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총괄하였다.

둘째 단락은 역대 비평가들의 《辨騷》에 대한 평가의 주요 갈래와 내용을 언급하였다. 劉勰은 역대비평가들의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즉 《辨騷》가 유가경전의 정신과 내용과 체제를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劉安·王逸·宣帝와 揚雄의 갈래와 《辨騷》가 유가경전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班固의 갈래가 그것이다.

* 본고는 《文心雕龍》주석서 가운데 가장 풍부한 주석을 담고 있는 詹鍈《文心雕龍義證》(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9)의 〈辨騷〉편을 완역한 것이다.

** 極東大 中國語學科 教授

셋째 단락은 이들 두 갈래의 주장을 비판하고 劉勰 자신의 주장을 총괄하였다. 첫째 《辨騷》는 악독한 정치지도자를 비판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치지도자를 칭찬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詩經》과 《尚書》의 내용과 형식을 본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辨騷》의 환상적인 내용은 비현실적이라서 유가경전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辨騷》는 《詩經》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辭賦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라고 총평하였다.

넷째 단락은 《辨騷》의 우수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표현이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고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굴원의 우국충정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辨騷》는 후대 사인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辨騷>편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고 변혁하는 데 있어서 《辨騷》가 그 본보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05-04 王逸以爲詩人提耳〔一〕, 屈原殉頃〔二〕, 《離騷》之文, 依經立義〔三〕: 馳叫乘
 鸞〔四〕, 則時乘六龍〔五〕: 崐崙流沙〔六〕, 則《禹貢》敷土〔七〕. 名儒辭賦
 〔八〕, 莫不擬其儀表, 所謂「金相玉質〔九〕, 百世無匹」者也.

홍윤기 번역: 또한 왕일은 (《초사장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詩經》의 시인들은, 임금이 어리석으면 귀를 잡아당겨 일깨워준다고 하였는데, (이에 비하면) 굴원은 부드럽다. 《이소》의 문장은 경전에 의지하여 뜻을 세웠다. 《이소》편의 ‘네 마리 뿔 없는 용을 부리어 봉황을 타네’라는 구절은 바로 《역·건》의 ‘때맞춰 여섯 마리의 용을 타고’에서 나온 것이며, (《이소》와 《초훈》편에 나오는) ‘곤륜산’과 ‘흐르는 모래사막’은 바로 《서경·우공》편에 나오는 (우임금이 나누어 다스렸던)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름난 작가들의 사부는 (《이소》를) 모범으로 삼아 흉내 내지 않은 작품들이 없었다. 이른바 (《이소》는 《시경》에서 말하는) ‘금과 옥과도 같은 바탕을 지닌 작품으로, 백세가 지날지라도 필적할 만한 작품은 없을 것이다.’”

〔一〕 《訓故》: 「《後漢書》: 王逸字叔師, 南郡宜城人, 順帝時官侍中, 著《楚

辭章句》。」

《訓故》:『《후한서》: 왕일의 자는 숙사이며, 남군 선성 사람으로, 순제 때에 시중의 관직을 지내었고, 《초사장구》를 지었다.』

王逸《楚辭章句序》:『且詩人怨主刺上, 曰:『嗚呼小子, 未知臧否, 匪面命之, 言提其耳。』』風諫之語, 於斯爲切。然仲尼論之, 以爲大雅。引此比彼, 屈原之辭, 優遊婉順, 寧以其君不智之故, 欲提攜其耳乎? 而論者以爲露才揚己, 怨刺其上, 強非其人, 殆失厥中矣。夫《離騷》之文, 依託《五經》以立義焉:『帝高陽之苗裔, 則『厥初生民, 時惟姜嫄』也; ……『駟玉虬而乘鸞』, 則『時乘六龍, 以御天也』; ……『登昆侖而涉流沙』, 則《禹貢》之敷土也。故智彌盛者其言博, 才益多者其識遠。屈原之辭, 誠博遠矣! 自終沒以來, 名儒博達之士, 著造辭賦, 莫不擬則其儀表, 祖式其模範, 取其要妙, 竊其華藻, 所謂金相玉質, 百世無匹, 名垂罔極, 永不干滅者矣。』

王逸《楚辭章句序》:『또한 《시경》 시인은 임금을 원망하고 풍자하여 『어허라 어린 녀석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얼굴을 마주하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당겨 일깨워주노라』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풍간의 말은 여기에서 절실하다. 그런데 공자는 이를 논하여 大雅라고 생각했다. 《시경》 시인의 말과 굴원의 말을 비교하여보면, 굴원의 말이 암전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굴원이라면) 어찌 그 임금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 귀를 잡아당기려고까지 하겠는가? 논자들은 굴원이 재능을 드러내고 자신을 뽑내었고, 그 임금을 원망하고 풍자하였으며, 억지로 아첨꾼들을 비난하였으니, 거의 그 중용됨을 잃었다고 여겼다. 《이소》의 문장은 《오경》에 의탁하여 뜻을 세웠으니, (《이소》의) 『나 굴원은 황제 고양의 후예로서』라는 문장은 (《詩經·大雅·生民》의) 『맨 처음 周나라 사람을 낳은 것은 이 강원이시라. (홍윤기 번역 주·주희의 주: 民, 人也, 謂周人也. 時, 是也. 姜嫄, 炎帝後, 姜姓, 有郃氏女, 名嫄, 爲高辛之世妃. 民은 사람으로, 주나라 사람을 일컫는다. 時는 바로 이것이다. 姜嫄은 炎帝의 후손으로, 姜은 姓으로 有郃씨의 딸이며, 이름은 嫄으로, 高辛씨의 世妃이다.)』를 본뜬 것이며; …… (《이소》의) 『네 마리 뿔 없는 용을 부리어 봉황을 타네』라는 문장은 바로 (《역·건》)『때때췌 여섯 마리의 용을 타고, 하늘을 부린다』에서 비롯된 것이며; …… (《이소》의) 『곤륜산에 올라 흐르는 모래를 건넌다』라는 문장은 《서경·우공》의 분할통치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지혜가 흥성한 사람일수록 그 말이 넓고,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학식이 심원하다. 굴원의 문사는 진실로 넓고도 깊다! 그가 죽은 이래로, 이름난

선비나 널리 통달한 인사들은 사부를 지음에 (《이소》를) 모범으로 삼아 흉내 내고, 그 양식을 우리러 본받으며, 그 오묘함을 취하며, 그 화려한 문체를 흠치지 않은 작품들이 없었다. 이른바 (《이소》는) ‘금과 옥과도 같은 바탕을 지닌 작품으로, 백세가 지날지라도 필적할 만한 작품은 없을 것이며 그 이름은 끝없이 드리워져서 영원히 없애 버릴 수 없을 것이다.’

《楚辭補注》本「人」下有「之」字. 《詩·大雅·抑》:「匪面命之, 言提其耳。」正義:「非但對面命語之, 我又親撕提其耳。」舊說周厲王無道, 詩人作此詩諷諭, 而且提撕厲王的耳朵, 促使他驚覺。」

《楚辭補注》本에는 「人」자 아래에 「之」자가 있다. 《詩·大雅·抑》:「얼굴을 마주하고 그 일을 일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당기어 일러주노라」正義:「얼굴을 마주하고 그것을 말하여 줄뿐만 아니라, 내 또한 몸소 그 귀를 잡아 당겨 깨우쳐주노라.」 옛 설에는 周나라 厲王이 무도하여 시인이 이 시를 지어 풍유하면서, 려왕의 귀를 잡아당겨,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143-

〔二〕 這是認爲《離騷》措辭還比《大雅·抑》和緩。

이것은 《이소》의 문사가 《대아·억》에 비하자면 유순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三〕 「依經立義」, 《漢書·藝文志·詩賦略論》:「及楚臣屈原, 離讒憂國, 皆作賦以風, 咸有惻隱古詩之義」

「경전에 의지하여 뜻을 세웠다.」에 대하여, 《漢書·藝文志·詩賦略論》:「초나라의 신하 굴원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는 혈똥음을 당하여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때마다 모두 시를 지어 풍간하였으니, 모두 측은한 《시경》의 뜻을 가지고 있다.

〔四〕 「駟」, 黃注本作「駟」, 誤. 按唐寫本、元刻本、弘治本均作「駟」.

「駟」는 黃注本에는 「駟(경: 말을 놓아기르는 목장)」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唐寫本、元刻本、弘治本에 따르면 모두 「駟(사: 한 수레에 매는 네 마리 말)」자로 되어있다.

《校注》:「《離騷》:『駟玉虬以乘鸞兮.』……當據各本改作『駟』。」

《校注》:「離騷》:『네 마리의 뿔 없는 옥용을 부리어 봉황을 타고.』」

…… 各本에 따라 『駟』로 바뀌어야 한다.」

《校證》:「『鷲』原作『翳』. 鈴木云:『洪本『翳』作『鷲』, 可從. ……』案王惟儉本作『鷲』, 今據改. 洪本, 謂洪興祖《楚辭補注》也.」

《校證》:「『鷲(예:갈매기)』는 원래 『翳(예:일산)』으로 되어있다. 鈴木 선생은 『洪本에는 『翳(예:일산)』가 『鷲(예:봉황)』로 되어있는데, 따를만하다. ……」라고 하였다. 王惟儉本에 따르면 『鷲』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에 따라 고친다. 洪本이란, 洪興祖의 《楚辭補注》이다.」

橋川時雄:「翳, 蔽也, 覆也, 與『鷲』通用. 故《詩·鳧鷖》序釋文云:鷖鳥, 鳳屬.」《校注》:「《離騷》……舊校云:『鷲一作翳.』……是『鷲』、『翳』二字古本相通.」按梅本正文作『翳』, 在注文中作『鷲』, 注云:「有角曰龍, 無角曰蚩. 鷲, 鳳凰別名也.」(此王逸注)

橋川時雄:「鷲(예:日傘)는 가리는 것이고, 덮는 것으로, 『鷲(예:봉황)』자와 통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詩·鳧鷖》序釋文에, 鷖鳥는 鳳의 무리에 속한다.」《校注》:「《離騷》……舊校에 『鷲는 翳라고도 되어있다.』……이 『鷲』、『翳』 두 자는 옛 판본에서는 서로 통한다.」梅本の 원문에는 「翳」라고 되어있고, 注에는 「鷲」라고 되어있다. 그 주에 「뿔이 있는 것을 일러 용이라고 하고 뿔이 없는 것을 일러 규하고 한다. 예는 봉황의 다른 이름이다.」(이것은 왕일의 주이다)

《訓故》:「《離騷》:駟玉蚩以乘鷲兮, 溘埃風余上征.」(此王逸注)《訓故》:「《離騷》:駟玉蚩以乘鷲兮, 溘埃風余上征.」《楚辭補注》:「言以鷲爲車而駕以玉蚩也. 駟, 一乘四馬也. 蚩, 龍類也, ……龍子有角者. 鷲, 于計, 烏鷄二切.」

《訓故》:「《離騷》:네 마리 뿔 없는 옥용을 수레에 메는 네 마리 말로 삼아 부리고 봉황을 수레 삼아 타노니, 문득 먼지바람 일으키며 나는 하늘로 날아오른다. (홍윤기 번역 주: 溘)(이것은 왕일 주이다.)《訓故》:「《離騷》:네 마리 뿔 없는 옥용을 부리어 봉황을 타노니, 문득 먼지바람 일으키며 나는 하늘로 날아오른다.」《楚辭補注》:「봉황을 수레로 삼고 뿔 없는 옥용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駟는 수레 하나에 네 마리 말이 있는 것이다. 규는 용의 종류이다. 용의 새끼 가운데 뿔이 있는 것이다. 鷲(예)는 于와 計, 烏와 鷄의 반절로 발음이 예이다.」

[五] 《易·乾》彖辭:「時乘六龍以御天.」王逸認爲《離騷》中的「駟玉蚩」就是根據《周易》中的「乘六龍」寫的. 正義:「此二句申明乾元乃統天之義, 言乾之爲德以依時. 乘駕六爻之陽氣, 以控御於天體. 六龍, 卽六位之龍也. 以所居上下言之, 謂之六位也. 陽氣升降謂之六龍也.」

《易·乾》彖辭:「때맞춰 여섯 용을 타고서 하늘을 부리노라.」 왕일은 《이소》의 「네 마리 뿔없는 용을 부린다」는 구절이 《주역》의 「여섯 용을 탄다」에 근거하여 쓰여졌다고 인식하였다. 正義:「이 두 구절은 하늘의 이치를 밝히어 하늘을 통괄한다는 뜻으로, 건의 덕됨이 때에 맞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육효의 양기를 타고 부림으로써 천체를 부리는 것이다. 여섯 마리의 용이란 바로 여섯 자리의 용이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거처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일러 여섯 자리라고 한다. 양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일러 여섯 용이라고 한 것이다.」

[六] 《離騷》:「遭吾道夫崑崙兮, 路脩遠以周流.」又:「忽吾行此流沙兮, 遵赤水而容與.」王注:「流沙, 沙流如水也. 《尚書(禹貢)》曰:『餘波入於流沙.』《訓故》:『《書·禹貢》:『織皮崑崙, 析支

-144-

渠搜, 西戎即敘.』又:『東漸于海, 西被于流沙.』《招魂》:「流沙千里.」(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용여는 노니는 모습이다. 容與, 游戲貌.』)(홍윤기 번역 주 被(피: 이르다))

《離騷》:「나의 길을 돌려 곤륜으로 향하노니, 길은 멀어 이리저리 둘러 보노라.」 또:「갑자기 나는 이 흐르는 모래의 땅에 이르노니, 붉은 물을 따라 노니네.」 왕일 주:「흐르는 모래란, 모래가 마치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尚書(禹貢)》에 『남은 물결을 흐르는 모래에 들이시고.』라는 구가 있다.」《訓故》:「《書·禹貢》에 『모피의 갓옷과 담요가 나는 곤륜·석지·거수 등 서음이 나와 차례로 복종하였다.』라는 구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흐르는 모래에 이르렀으며.』라는 구가 있고, 《招魂》에 「흐르는 모래가 천리나 된다.」라는 구가 있다.

[七] 《尚書·禹貢》:「禹敷土.」正義:「禹分布治此九州之土.」

《尚書·禹貢》:「우임금이 땅을 나누어,」正義:「우임금이 이 아홉 주의 땅을 나누어 다스리시는 것이다.」

[八] 橋川時雄:「唐寫及《楚辭》夫蓉館, 汲古閣本作『詞』, 各本作『辭』.」

橋川時雄:「당사본 및 《楚辭》夫蓉館, 汲古閣本에는 『詞』로 되어있는데, 各本에는 『辭』로 되어있다.」

[九] 《詩·大雅·棫樸》:「金玉其相.」毛傳:「相, 質也.」比喻文章의 形式和內容都

很華美.

《詩·大雅·棫樸》:「금옥 같은 그 바탕이로다.」毛傳:「相은 바탕이다.」
문장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05-05 及漢宣嗟嘆 以爲皆合經術〔一〕; 揚雄諷味〔二〕, 亦言體同《詩》雅〔三〕. 四家
舉以方經〔四〕, 而孟堅謂不合傳〔五〕. 褒貶任聲〔六〕, 抑揚過實, 可謂鑿而非精
〔七〕, 翫而未覈者也〔八〕.

홍윤기 번역: 또한漢宣帝는 《초사》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모두가 경전의 말들과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였고, 양웅은 《초사》를 맛보고서는 “體制가 《시경》과 같다”라고 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회남왕·왕일·선제와 양웅 등의) 네 사람은 (《초사》가) (유가)경전과 닮아 있다고 들고 있으나, (이와 달리) 반고는 (경전의 하나인) 《좌전》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칭찬과 비난은 제멋대로여서, 누르고 치켜 세움이 실재를 벗어나니, 살피는 보았으되 정밀하지 못하고, 즐기는 보았으되 핵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一〕《校證》:「唐寫本『術』作『傳』.」橋川時雄:「兩是.」

《校證》:「唐寫本에 『術』은 『傳』으로 되어있다.」橋川時雄:「둘다 옳다.」

范注:「《漢書·王褒傳》:『宣帝時, 修武帝故事, 講論六藝群書, 博盡奇異之好, 徵能爲《楚辭》九江被公, 召見誦讀. ……所幸宮館, 輒爲歌頌, 第其高下, 以差賜帛. 議者多以爲淫靡不急. 上曰: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 辭賦大者與古詩同義, 小者辯麗可喜. 譬如女工有綺縠, 音樂有鄭衛, 今世俗猶皆以此虞說耳目, 辭賦比之, 尚有仁義風諭, 鳥獸草木多聞之觀, 賢于倡優博奕遠矣.』」(홍윤기 번역 주: 淫靡(음미): 지나치게 즐기면서 멋대로 낭비하다. 不急: 급하지 않은 곳.)

范注:「《漢書·王褒傳》:『선제 때에 무제의 이야기를 다듬으면서, 六藝에 관한 여러 서적을 강론하기도 하였고, 기이한 이야기들 중에서 훌륭한 것을 두루 찾았으니, 《초사》를 잘 하는九江땅의 피공을 불러들여, 외워 읽어보도록 시켰다. …… (선제께서) 궁관에 행차하시면, (왕포는) 바로바로 가송을 지었다. 그 위아래를 매겨서 차등에 따라 비단을 내리셨다. 그러나 의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데에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기었다. 그러자 선제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께서도 “배부르게 먹고 하루해를 마치면서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면 어렵다.” 바둑이라도 있지 않은가?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두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辭賦 가운데 위대한 작품은 《시경》과 본뜻이 같으며, 하찮은 것일 지라도 표현이 아름다워 즐길만하다. 비유컨대 女工이 짠 비단 가운데에는 예쁜 무늬의 비단이 있고, 음악에는 鄭나라와 衛나라의 화려한 음악이 있는 것과 같다. 지금 世俗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눈과 귀를 기쁘게 한다. 辭賦를 여기에 비유하면, 오히려 仁義와 風諭의 내용이 있으며, 온갖 새와 짐승 풀과 나무들의 모습을 마치 보이듯이 들려주고 있으니, 배우들의 몸짓을 보거나 비독을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

《甚詮》:「嗟歎, 吟誦也. 「嗟歎, 吟誦也. 王念孫《廣雅疏證》:『《樂記》:「長言之不足, 故嗟嘆之.」鄭注:「嗟歎, 和續之也.」是古謂吟爲嗟歎也.』《詩大序》:「言之不足, 則嗟歎之.」

《甚詮》:「嗟歎(차탄)은 읊조리는 것이다. 王念孫《廣雅疏證》:『《樂記》:「말을 길게 늘어어도 부족하게 되면 탄식한다.」鄭玄注:「嗟歎은 어우러지듯 말을 길게 뽑아 있는 것이다.」옛날에는 시로 읊조리는 것을 嗟歎이라고 하였다.』《詩大序》:「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탄식하게 된다.」

-145-

〔二〕唐寫本「諷」作「談」, 誤. 斯波六郎:「戶田浩曉氏《校勘記補》曰:『鍾本味作詠.』案應作『諷味』爲是. 『諷味』之用例, 見晉東海王越之《敕世子毗》《諷味遺言》(《世說·賞譽》篇, 又《文選·齊竟陵王行狀》注引《晉中興書》).』《校證》:「《古論大觀》『味』作『詠.』《綴補》:「《稗編》七三引『味』作『詠.』按『詠』字義長.

唐寫本에는 「諷」이 「談」으로 되어있으나, 틀리다. 斯波六郎:「戶田浩曉氏의 《校勘記補》에는 『鍾本에는 「味」자가 「詠」자로 되어있다.』라고 하였으나, 생각건대 마땅히 『諷味』가 되어야 옳다. 『諷味』가 쓰인 예를 살펴보면, 晉나라 東海王 越의 《敕世子毗》에 『諷味遺言』라고 되어있다. (《世說·賞譽》篇, 그리고 또 《文選·齊竟陵王行狀》의 주에 《晉中興書》가 인용되어있다.).』《校證》:「《古論大觀》에는 『味』자가 『詠』자로 되어있다.』《綴補》:「《稗編》七三에 인용된 것에는 『味』자가 『詠』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詠」자의 의미가 낫다.

〔三〕《校注》:「按子雲語無攷, 黃范諸家注亦未詳. 王逸《楚辭·天問》後序:『昔屈原所作, 凡二十五篇, 世相傳, 而莫能說《天問》, 以其文義不次, 又多奇怪之事, 自太史公口論道之, 多所不逮; 至于劉向, 揚雄, 援引傳記(舊校云:「一作經傳.」)以解說

之, 亦不能詳悉。」舍人謂其『言體同《詩》《雅》, 就此可得其彷彿。」

《校注》: 「생각전대, 양옹(홍윤기 번역 주·자운은 양옹의 자)의 말은 고증할 수 없으니, 황숙립·범문란 등 여러 학자들의 주 또한 상세하지 않다. 왕일 《초사·천문》후서에 이르기를 『옛날 고훈이 지은 바, 무릇 25편은 대대로 서로 가르쳐 전해져왔으나, 《천문》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의 뜻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또한 기괴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이에 대하여 언급한 이래로, 대부분이 이르지 못하다가, 유향·양옹에 이르러 전기(舊校에: 「經傳이라고도 되어있다.」)로 그것을 해설하였으니, 또한 모두가 상세히 밝힐 수는 없었다.』 유향이 말한 바의 『(양옹은) ‘체제가 《시경》과 같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은 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 라는 것이다.

橋川時雄: 「按《法言·吾子》卷第二云: 『或曰賦可以諷乎? 曰諷乎.』又云: 『事勝辭則伉, 辭勝事則賦, 事辭稱則經. 足言足容, 德之藻矣.』李軌注云: 『事辭稱稱, 乃合經典.』彦和所說亦本此.」

橋川時雄: 「(양옹)《法言·吾子》卷第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이가 ‘부는 풍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 ‘풍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군자는 사실을 귀중하게 여기며 헛된 표현을 가벼이 여긴다.) 사실이 표현을 이기는 것이 伉(항: 剛直함)이요, 표현이 사실을 이기는 것이 賦요, 사실과 표현이 나란한 것이 經이다. 말할 수 있고 얼굴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면의 덕이 꾸민 것이다.』李軌 注에 『사실과 표현이 서로 동등한 것은 경전에 딱 맞는다.』라고 하였는데, 유향이 말한 것도 또한 여기에 뿌리를 둔 것이다.」

홍윤기 번역 주 「體」는 《문심조룡》에서 번역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개념여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의 「體」는 형식이 아니라, ‘스타일’·‘내용’·‘경향성’·‘주제’ 등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개념으로 여겨진다. 중국어로는 보통 體制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한국어로 ‘체제’는 형식의 의미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四] 梅注: 「四家, 卽漢武, 淮南, 宣帝, 揚雄.」曹學佺批: 「四家當是王逸, 非漢武.」梅씨는 「四家は 바로 한무제, 회남왕 유안, 선제, 양옹이다.」라고 주를 달았는데, 이에 대하여 曹學佺은 「四家 가운데는 마땅히 왕일이 들어가야 하며 한무제가 들어가는 것은 틀리다.」라고 비평하였다.

홍윤기 번역 주 「擧」자는 두 가지로 풀이 될 수 있다.

1. 들다: 「각자는 자신의 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謂」자와 대응관계로 볼 수 있다.

2. 모두: 「네 사람 모두는」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班固만 혼자」의 의미상의 대응관계로 볼 수 있다.

「方」자는 「比 견주다」 혹은 「답아있다/맞추어진다」의 의미.

〔五〕 范注:「鈴木云:洪本『傳』下有『體』字.」《樹詮》:「案『合傳』與上句『方經』對文,不應有『體』字.」

范注:「鈴木선생은 ‘洪本에 『傳』자 아래에 『體』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樹詮》:「생각건대, 『合傳』과 윗 구의 『方經』은 서로 대구이기 때문에, 『體』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六〕 《樹詮》:「任聲, 任意言談, 亦即信口批評之意. 聲, 卽言也, 見《鬼谷子·反應》『以無形, 求有聲』注.」

《樹詮》:「任聲(임성)이란 뜻에 따라 멋대로 말하는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비평한다는 뜻이다. 聲은 말이다. 《귀곡자·반응》의 『형체가 없는 것으로 소리가 있는 것을 구한다.』의 주를 보라.」

《注訂》:「任聲指其言非, 過實指其義謬.」

《注訂》:「‘제멋대로’라는 비평은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가리키며, ‘실제를 벗어난다’라는 비평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가리킨다.

〔七〕 唐寫本, 「弗」作「不」.

唐寫本에는 「弗」자가 「不」자로 되어있다.

〔八〕 「覈」, 核實. 全句意謂玩味而未核實. 橋川時雄:「唐寫『也』作『矣』, 各本作『也』.」

「覈(핵:씨/핵실하다, 즉 사물의 핵심까지 살펴보다)」은 사물의 핵심이 되는 알갱이. 전체 구의 의미는 놀아보고 그 맛을 보았으되 그 핵심을 살펴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橋川時雄:「당사본에는 『也』자가 『矣』자로 되어있고, 각본에는 『也』자로 되어있다.」

以上爲第二段, 辨別漢代各家對《離騷》的評價, 認爲都有失於偏頗.

이상은 제 2단락으로 《이소》에 대한 漢代 연구자들의 평가를 나누어

보면서, 각자 모두 치우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

05-06 將覈其論, 必徵言焉. 故其陳堯舜之耿介〔一〕, 稱禹湯之祇敬〔二〕: 典誥之體也〔三〕. 機箴紂之猖披〔四〕, 傷羿澆之顛隕〔五〕: 規諷之旨也. 虬龍以喻君子〔六〕, 雲蜺以譬讒邪〔七〕: 比興之義也. 每一顧而掩涕〔八〕, 歎君門之九重〔九〕: 忠怨之辭也〔一〇〕. 觀茲四事, 同於《風》《雅》者也〔一一〕.

간주: 祇敬(지경) 祇=敬. 顛隕(전: 떨어지다. 운: 떨어지다) (목이) 땅에 거꾸로 떨어지다. 規諷(규풍): 타이르고 풍간하다.

홍윤기 번역: 이들 비평(의 옳고 그름)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초사》의 내용에 맞춰보아야 한다. 《이소》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영광과 위대함을 펼쳐 서술하고, 夏나라 우임금과 은나라 탕임금의 경건함을 칭찬한 것은 《상서》의 《堯典》과 《湯誥》 등의 서술방식이다. 하나라 걸임금과 은나라 주임금의 무도함을 나무라고, 예와 요가 머리가 잘려 떨어진 것을 애달파 한 것은 諷諫의 취지이다. 뿔 없는 용을 군자에 비유하고, 구름과 무지개를 헐뜯기 잘하는 악인에 비유한 것은 比興의 뜻이다. (잃어버린 고국을) 한 번 돌아볼 적마다 눈물을 흘리고, 임금이 사는 궁문이 아홉 겹임을 탄식하는 것은 충성과 원망의 말이다. 이 네 가지의 일을 보면 《풍》과 《아》를 대표로 하는 《시경》과 같음을 알 수 있다.

〔一〕 《訓故》: 『彼堯舜之耿介兮, 既遵道而得路.』 王逸注: 『耿, 光也; 介, 大也.』

《訓故》: 『저 요임금과 순임금은 빛나고도 크시구나. 이미 도를 좇아 길을 얻었도다.』 王逸 주: 『耿(경: 빛나다)은 빛/빛나다. 介(개: 크다)는 크다.』

(홍윤기 번역 주- 徵은 증명하다. 言은 《초사》의 원문.)

〔二〕 《校證》: 『禹湯』原作『湯武』, 今從唐寫本及明翻宋本《楚辭》改.』

《校證》: 『우임금과 탕임금』은 원래 『탕임금과 무임금』으로 되어있으나, 지금은 당사본 및 명나라 때 翻刻한 宋나라 판본인 《楚辭》에 근거하여 바꿨다.』

黃注: 『《離騷》: 『湯禹儼而祇敬兮, 周論道而莫差.』』

黃注: 『《離騷》: 『탕임금과 우임금께서는 엄숙하면서도 존경스러우시니, 周나라 문왕과 무왕께서는 도리를 논하심에 틀림이 없어라.』』

范注: 『據《離騷》應作湯禹.』

范注: 『《離騷》에 근거하여 마땅히 ‘湯禹’로 되어야한다.』

《校注》:「按《楚辭·離騷》:『湯禹儼而祇敬兮』, 又:『湯禹嚴而求合兮』, 并作『湯禹』;《九章·懷沙》:『湯禹久遠兮』, 亦作『湯禹』. 疑舍人此文, 原從《離騷》作『湯禹』, 傳寫者以爲失敘, 乃改爲湯武耳. 若本作『禹湯』, 恐不致誤也。」

《校注》:「《楚辭·離騷》에 따르면, 『탕임금과 우임금께서는 엄숙하면서도 존경스러우시니』라고 되어있고, 또: 『탕임금과 우임금께서는 엄정하게 자신의 뜻과 들어맞는 현자를 구하셨노니』라고 모두 『湯禹』로 되어있다. 《九章·懷沙》에도 『탕임금과 우임금의 시대는 아득히 오래 되었으니』라고 또 『湯禹』로 되어있다. 유협의 이 문장은 원래 《離騷》를 좇아서 『湯禹』였을 것인데, 베껴 쓰는 사람이 ‘湯武’로 잘못 베껴 썼을 뿐이라고 의심된다. 만약에 본래 『禹湯』라고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王逸注:「儼, 畏也. 祇, 敬也.」王逸注:「儼(엄)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祇(지)는 공경하는 것이다.」

〔三〕唐寫本脫「典誥之體也, 譏桀紂之猖披, 傷羿澆之顛隕, 規諷之旨」四句.

당사본에는 「典誥之體也, 譏桀紂之猖披, 傷羿澆之顛隕, 規諷之旨」의 네 구가 없다.

范注:「《詩》無典誥之體.」

范注:「《시경》에는 전고의 양식이 없다.」

《注訂》:「原述堯舜禹湯, 得《尚書》典誥之體要, 非體裁之謂.」

《注訂》:「원래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을 서술하는데, 《상서》 전고의 요체를 얻었음이지, 체재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孔安國《古文尚書序》:「典、

謨, 訓, 誥, 誓命之文凡百篇. 所以恢宏至道, 示人主以軌範也.」(홍윤기 번역 주:恢宏(회굉): 넓히다.) 孔安國《古文尚書序》:「전·모·훈·고·서명의 문장은 무릇 백 편이다. 지극한 도를 넓히는 것은 임금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四〕《離騷》:「何桀紂之猖披兮, 夫惟捷徑以窘步.」王逸注:「猖披, 衣不帶之貌. ……衣不及帶, 欲涉邪徑.」猶今言行爲不檢. 《文選》五臣注:「良曰: 昌披, 亂也. 《文選》五臣注:「良曰: 昌披, 亂也.」(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捷, 疾也. 徑, 邪道也. 窘, 急也. 言桀, 紂愚惑, 違背天道, 施行惶遽, 衣不及帶, 欲涉邪徑, 急疾爲治, 故身觸陷阱, 至于滅亡, 以法戒君也. 捷은 빠른 것이다. 徑은 사악한 길이다. 窘(군: 막히

다)은 급한 것이다. 桀임금과 紂임금이 어리석고 미혹해서 하늘의 도를 어기고 두려워하고 질박한 정치를 실시하니, 옷에 허리띠도 차지 못해, 사악한 길로 가고자하여 급박하게 정치를 행하다가 몸이 함정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되니, 이러한 법도로 임금을 경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離騷》:「어찌 걸임금과 주임금은 허리띠도 차지 못한 채, 사악한 지름길로 갈 길을 재촉하는가.」王逸 주에 「猖披(창피)는 옷에 허리띠를 차지 않은 모습이다.……옷에 허리띠를 차지 않고 사악한 길을 가려하는 것이다.」오늘날의 행동거지에 다짐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과 같다.《文選》五臣주에:「劉良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猖披(창피)는 어지러운 것이다.」

[五] 《離騷》:「羿淫遊以佚田兮, 又好射夫封狐; 固亂流其鮮終兮, 況又貪夫厥家. 澆身被服強罔兮, 縱欲而不忍. 日康娛而自忘兮, 厥首用夫顛隕.」王逸注:「言羿因夏桀亂, 代之爲政, 娛樂畋獵, 不恤民事, 信任寒澆, 使爲國相. 澆行媚於內, 施賂於外, 樹之詐惡, 而專其權勢. 羿收將歸, 使家臣逢蒙射而殺之, 貪取其家以爲己妻.」又:「澆, 寒澆子. ……言澆取羿妻而生澆, 彊梁多力, 縱放其慾, 不能自忍. 既滅夏后相, 安居無憂, 日作淫樂, 忘其過惡, 卒爲相子少康所誅.」

《離騷》:「예는 어지러이 노니며 마구 사냥을 다니다가, 커다란 여우를 쏘아 맞혔다네. 음란한 무리는 좋은 마침이 정말로 드물더니, 한착은 또한 (예를 죽이고) 그 아내를 탐하였지. (한착의 아들) 요는 센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욕심을 좇아 참지 못하였다네, 매일 편히 놀면서 자신을 잊더니, 그 머리가 떨어지고 말았지」王逸 주:「예는 하나라가 쇠퇴하여 혼란스러워지자, 이어서 정치를 하였으나,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백성들의 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한착을 신임하여 나라의 재상으로 부리었다. 한착은 안으로는 행동이 아침을 부리었으며, 밖으로는 뇌물을 뿌리어서, 거짓되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 예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신 방몽을 시켜 화살을 쏘아 예를 죽이었고 그 집의 아내를 탐하여 자신의 처로 삼았음을 말한다.」또:「요는 한착의 아들이다. …… 한착이 예의 처를 취하여 요를 낳았는데, 요는 힘이 세고 그 욕심을 방종하여 스스로 참지를 못하였다. 하나라 임금 상을 죽이고서 편안히 살면서 걱정이 없었는데, 날로 음탕스레 즐기지만 하면서 그 허물과 사악함을 잊어, 마침내 상의 아들 소강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음을 말한다.」

[六] 黃注:「《涉江》:『駕青虬兮驂白螭.』注:『虬螭, 神獸, 宜於駕乘, 以喻賢人清白可信任也.』」橋川時雄:「按虬龍注見前條, 黃注引《九章·涉江》亦無謂也. 《

天問》又有『焉有虬龍』句, 王逸注略同。」

黃注:「《涉江》:『푸른 용을 부리네, 하얀 용을 걸말처럼 삼고서』注:『虬螭(규리)는 신령스런 짐승으로 부리어 탈만한데, 현인이 청렴결백하여 믿을만한 함을 비유한 것이다.』」橋川時雄:「생각건대, 虬龍에 대한 주는 앞에 보이며, 黃注는 《九章·涉江》을 인용하면서 또한 일컫지 않았다. 《天問》에도 『어이하어 규룡이 있는가.』라는 구가 있고, 王逸의 注도 대략 같다.」

〔七〕黃注:「《離騷》:『飄風屯其相離兮, 帥雲霓而來御。』注:『飄風, 無常之風, 以興邪惡; 雲霓, 惡氣, 以喻佞人。』」《校注》:「按《楚辭》王逸《離騷序》:『《離騷》之文, 依詩取興, 引類譬諭; ……虬龍鸞鳳以託君子, 飄風雲霓以爲小人。』」

黃注:「《離騷》:『회오리바람이 모였다가 서로 흩어지더니, 구름과 암무지개를 몰고 나와 맞이한다.』」注에 『飄風(표풍-飄: 회오리바람)은 일정함이 없는 바람으로 사악함을 일으킨다. 雲霓(운예)는 악한 기운으로 아침꾼을 비유한다.』」《校注》:「《楚辭》王逸《離騷序》에 따르면, 『《離騷》의 문장은 《시경》에 기대어 흥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범주를 끌어들이 비유하고 있다. …… 뿔 없는 규와 뿔 있는 룡과 난새와 봉새는 군자를 빗대고 있으며, 회오리바람 구름과 암무지개는 소인을 빗대고 있다.』」

「雲霓, 一作『雲霓』.

「雲霓」는 「雲霓」라고도 되어있다.

《楚辭補注》:「說文: 霓, 屈虹, 青赤或白色, 陰氣也. 郭氏云: 雄曰虹, 謂明盛者; 雌曰霓, 謂暗微者。」

《楚辭補注》:「《설문해자》에 霓(예)는 굽은 무지개로서, 푸른색 붉은색이거나 흰색인데, 음기이다. 꺾씨가 이르기를 수컷을 虹(홍)이라 하는데 밝게 드러나는 것을 일컫는다. 암컷을 霓(예)라고 하는데 어두워 흐릿한 것을 일컫는다.

〔八〕《離騷》:「長太息以掩涕兮, 哀民生之多艱。」洪興祖補注:「掩涕, 猶拭淚也。」《哀郢》:「望長楸而太息兮, 涕淫淫其若霰; 過夏首而西浮兮, 顧龍門而不見。」

《離騷》:「길게 한숨지으며 눈물을 닦으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많음을 슬퍼하도다。」洪興祖補注:「掩涕(임체)는 눈물을 문지르는 것과 같다. (홍운기 번역 주-拭(문: 닦다./문지르다.))」《哀郢》:「望長楸而太息兮, 涕淫淫其若霰:

過夏首而西浮兮, 顧龍門而不見. 길게 자란 개오동나무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짓네, 눈물이 주룩주룩 싸라기눈처럼 흐르네, 夏首를 거쳐 서쪽을 떠다니다가, 뒤 돌아 용문을 바라보니 보이지 않아.』(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夏首, 夏水口也. 船獨流爲浮也. 龍門, 楚東門也. 言己從西浮而東行, 過夏水之口, 望楚東門, 蔽而不見, 自傷日以遠也.』夏首는 夏水의 입구이다. 배가 홀로 흘러가며 떠있는 것이다. 龍門은 楚나라의 東門이다. 굴원 자신이 서쪽에서 배를 타고 동동 떠다니며 동쪽으로 가면서 하수의 입구를 지나다가 초나라의 동문을 바라보았으나, 가리어 보이지 않자, 제 스스로 슬퍼함이 날로 깊어지는 것이다.』

[九] 黃注:『《九辯》:『豈不鬱陶而思君兮, 君之門以九重.』注:『闔闔局閉, 道路塞也.』《文選》五臣注:『雖思見君, 而君門深邃, 不可至也.』

黃注:『《九辯》:『어찌 아니 답답하고 울적하여 임 그림자 양으리오, 임 계신 곳 문은 아홉 겹이라.』注:『궁궐안의 모든 문에 빗장이 단혀서 길이 막힌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闔闔(곤-문지방, 달-문의 총칭): 온갖 문들 /扃(경:빗장))《文選》五臣注:『비록 임을 보고파 그리지만, 임 계신 곳의 문들이 깊고도 깊어서 이를 수 없는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邃(수:깊다)).』

[一〇] 唐寫本「辭」作「詞」. 下同, 不重出校語.

唐寫本에는 「辭」자가 「詞」자로 되어있다. 아래도 같으며, 가르치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

[一一] 唐寫本「於」作「乎」.

唐寫本에는 「於」자가 「乎」자로 되어있다.

范注:『《詩》無典誥之體. 彦和云『觀茲四事, 同於《風》《雅》』, 似宜云:『同於《書》《詩》.』』

范注:『《시경》에는 전고의 양식이 없다. 유희이 『이 네 가지 일을 살펴 펴봄에, 《풍》《아》를 대표로 하는 《시경》과 같다』라고 말하였는데, 마땅히 『《서경》《시경》과 같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斯波六郎:『案如范說, 下文『故論其典誥則如彼』之『典誥』亦應改爲『書詩』. 如以彦和此之『風雅』與彼之『典誥』互文而言, 此『風雅』不應改.』

斯波六郎:『생각건대, 만약에 범문란이 말한 대로한다면, 아래 문장의 『故論其典誥則如彼』의 『典誥』는 마땅히 『書詩』로 바뀌어야만 한다. 유희은 이러한 『風雅』와 지러한 『典誥』를 서로 대구로 써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風雅』는 바뀌서는 안 된다.』

《注訂》:「《風》《雅》概而言之也, 《離騷》本《詩》之別裁, 同於《風》《雅》者, 不違詩人之志, 而同于詩人之旨也, 故曰同。」

《注訂》:「《風》《雅》는 대체로 말한 것이다. 《離騷》가 《시경》의 또 다른 형식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風》《雅》와 같다 라는 것은 시인의 뜻을 위배하지 않고 시인의 뜻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같다고 한 것이다.」

05-07 至于託雲龍[一], 說迂怪[二], 豐隆求宓妃[三], 鳩鳥媵城女[四]: 詭異之辭也, 康回傾地[五], 夷羿斃日[六], 木夫九首[七], 土伯三目[八]: 譎怪之談也[九], 依彭咸之遺則[一〇], 從子胥以自適[一一]: 狷狹之志也[一二], 士女雜坐, 亂而不分[一三], 指以爲樂; 娛酒不廢, 沉湎日夜[一四], 舉以爲權[一五]: 荒淫之意也, 摘此四事[一六], 異乎經典者也[一七].

간주: 斃(페: 넘어뜨리다/떨어뜨리다) 狷狹(견협): 견-성급하다. 협-좁다.

홍윤기 번역: (그러나) 구름과 용에 의탁하여 무척이나 괴이한 일들을 말하고, 구름의 신 풍용에게 낙수의 여신 복비를 찾게 하고, 짐새로 하여금 유용씨의 딸과 사이를 맺게 한 것(《離騷》)은 이상한 이야기이다. 공공이 대지의 기둥을 넘어뜨리고, 이예가 해를 쏘아 쓰러뜨린 것(《天問》)과,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나무꾼과 세 개의 눈을 가진 토지신(《招魂》)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은의 현자 팽함이 남긴 법도에 기대며(《離騷》), 오자서를 따라 맘껏 노는 것은(《九章》)은 고집스러우면서도 좁은 생각이다.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앉아 어지러이 가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즐겁다 여기고, 술을 즐겨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빠져 있는 것(《招魂》)을 들어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퇴폐적인 생각이다. 여기에서 뽑아 말한 네 가지 사실은 經典과 다른 점들이다.

[一] 《離騷》:「駕八龍之婉婉兮, 載雲旗之委蛇。」王逸注:「駕八龍者, 言己德如龍, 可制御八方; 載

《離騷》:「여덟 마리의 용을 부리노니 꿈틀꿈틀, 구름깃발 꼬아놓으니 펠럭펠럭.」王逸 注:「여덟 마리의 용을 부린다는 것은, 자신의 덕이 용과 같아서 여

뒹 방향으로 이들을 부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름깃발을 쫓는다는 것은 자신의 덕이 비구름 같아서 만물에 베풀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婉婉, 龍貌. 婉婉은 龍의 모습이다.』 委蛇: 이어지며 구불구불한 모습.」)

〔二〕「迂怪」, 迂遠怪誕. 下文所說「木夫九首, 土伯三日」等事, 都是「說迂怪」.

「迂怪(우괴: 迂(우: 멀다) 怪(괴: 괴이하다))」는 현실과 멀리 동떨어져 괴상한 것이다. 아래 글에서 말하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나무꾼과 세 개의 눈을 가진 토지신」 등의 일은 모두 「매우 괴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三〕唐寫本「豐」上有「駕」字. 趙萬里校記:「案此處上下文均三字爲句, 『駕』字當據唐本補.」黃注:「『吾令豐隆乘雲兮, 求宓妃之所在.』注:『豐隆, 雲師, 一曰雷師. 宓妃, 神女也, 以喻隱士.』梅注:『宓妃, 伏羲氏女, 爲洛水神也.』五臣注:『宓妃, 以喻賢臣.』」

唐寫本에는 「豐」자 위에 「駕」자가 있다. 趙萬里 校記:「생각건대, 이곳의 위아래 문장은 모두 세 글자로 구를 이루고 있어서, 『駕』를 당사본에 의거하여 마땅히 보충해야한다.」黃注:「『나는 구름의 신 풍룡에게 명령하여 구름을 타고서, 복비가 있는 곳을 찾게 한다.』注:『豐隆(풍룡)은 구름 부리는 신으로서, 雷師(뢰사) 우뢰 부리는 신이라고도 한다. 복비는 신의 딸로서, 숨어 지내는 선비에 비유된다.』梅注:『복비는 복희씨의 딸로 락수의 신이다.』五臣注:『복비는 현명한 신하에 비유된다.』」

〔四〕「娥女」, 原作娥女, 梅注本改, 黃注本從之. 唐寫本「鳩」上有「憑」字, 「娥」作「娥」. 趙氏校記:「案唐本是也, 今本有脫誤, 當據改.」

「娥女」는 원래 「娥女」로 되어 있었으나, 梅注本은 바꾸었고, 黃注本은 그것을 따랐다. 唐寫本에는 「鳩」자 위에 「憑」자가 있고, 「娥」자는 「娥」자로 되어있다. 趙氏가 校記를 달면서, 「생각건대, 당사본이 옳다. 오늘날의 판본에는 빠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당사본에 따라 바꾸어야 한다.」

《離騷》:「望瑤台之偃蹇兮, 見有娥之佚女. 吾令鳩爲媒兮, 鳩告余以不好.」王注:「有娥, 國名, 謂帝嚳之妃, 契母簡狄也. 配聖帝, 生賢子, 以喻貞賢也.」「鳩, 運日也, 羽有毒可殺人, 以喻讒佞賊害人也. 言我使鳩鳥爲媒, 以求簡狄, 其性讒賊, 不可信用, 還詐告我, 言不好也.」

《離騷》:「높고도 먼 옥으로 된 누대를 바라보노니, 유용국의 아름다운 여인 보이네. 내 짐새에게 중매를 서게 하였으나, 짐새는 내게 나쁘다고 하네,

왕일 주:「유용은 나라이름으로, 제곡의 아내를 일컫는데, 설의 어미 간적이다. 성스런 황제와 짝하여 현자를 낳아서, 정조 있는 현인을 비유한다.」 「짐새는 해를 움직이는데, 날개에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일 수 있기에, 혈뜯고 아첨하여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한다. 내가 짐새로 하여금 중매를 삼아 간적을 구하는데, 짐새의 성질이 혈뜯고 해치기를 좋아하여 믿을 수 없었는데 돌아와 나를 속이어서 좋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偃蹇, 高貌.』 偃蹇(언건)은 높은 모양이다.」

〔五〕 梅注:「康回, 共工名. 蛇身朱髮. 任智自神, 傲亂天常, 竊保冀方, 自謂水德, 欲壅防百川, 隳高堙卑, 以害天下. 王逸《離騷注》云: 共工怒觸不周山, 地柱折, 故傾也.」 《天問》:「康回憑怒, 地何故以東南傾?」 王逸注:「康回, 共工名也. 《淮南子》言共工與顛頊爭爲帝, 不得, 怒而觸不周之山. 天維絕, 地柱折, 故東南傾也.」(홍윤기 번역 주: 倅(숙: 괴이하게 하다))

梅注:「강회는 공공의 이름이다. 뱀의 몸뚱이에 붉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다. 제멋대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여 하늘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기 땅의 사방을 훔치며 지키면서 스스로 물의 덕에 의해서 이룬 것이라고 말하였다. 백 개의 하천을 막으려고 높은 곳을 무너뜨리고 낮은 곳을 돋우어 천하를 해롭게 하였다. 왕일은 《이소주》에서 “공공이 화가 나서 부주산에 부딪치자, 땅의 기둥이 꺾이어서 기울어졌다”라고 하였다.」 《天問》:「강회가 화가 났다고, 땅은 무슨 까닭으로 동남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王逸注:「강회는 공공의 이름이다. 《회남자》에 공공이 전욱과 황제가 되려는 싸움을 벌였는데, 황제가 되지 못하자, 화가 나서 부주산에 부딪쳤다. 그러자 하늘(을 묶고 있던 끈)이 끊어지고 땅의 기둥이 꺾이어서, 땅이 동남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范注:「案《淮南》語在《天文訓》.」 范注:「생각건대, 《淮南子》의 말은 《天文訓》에 있다.」 橋川時雄:「唐寫誤作『乘回』, 『康』作『乘』, 形似之譌. 按唐寫本此字在『康』『乘』之間. 橋川時雄:「당사본에는 『乘回』라고 잘못 되어있는데, 『康』자를 『乘』자로 쓴 것은 글자의 겉모습이 비슷하여 일어난 잘못이다.」 생각건대, 당사본의 이 글자는 「康」자와 「乘」자 중간즈음의 글자로 쓰여있다.

〔六〕 《校證》:「『斃』原作『蔽』, 孫汝澄、徐勣改『殫』, 王惟儉本同, 唐寫本作『斃』. 案《天問》:『羿焉殫』

-150-

日, 王注:『彈一作斃,』是彥和據一本作『斃』也. 翻宋本《楚辭》載此文作『弊』. 《諸子》篇『羿弊十日』, 一本『弊』作『斃』. 『弊』卽『斃』之隸變, 『蔽』又『斃』之形誤. 『斃』『斃』音義俱同, 今從唐寫本.]

《校證》:『『斃(폐:넘어지다/쓰러지다)』자는 원래 『蔽(폐:덮다)』자로 되어 있는데, 孫汝澄·徐勳은 『彈(필:쏘다)』자로 바꾸었고, 王惟儉本은 같고, 唐寫本에는 『斃』자로 되어있다. 《天問》에 따르면, 『예는 어이하어 해를 쏘았나 羿焉彈日』라고 되어있는데, 王의 注에는 『彈』자는 『斃』자로도 되어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협이 근거한 판본에 『斃』자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翻刻 宋本《楚辭》에는 이 문장이 『弊』자로 실려있다. 《諸子》篇에는 『羿가 열 개의 해를 넘어뜨리다.』라고 되어있으며, 어느 한 판본에는 『弊』자가 『斃』자로 되어있다. 『弊』자는 바로 『斃』가 예서체로 변화된 것이며, 『蔽』자는 또 『斃』자의 형태상의 잘못이다. 『斃』자와 『斃』자는 소리와 뜻이 모두 같아서, 지금은 당사본을 따랐다.]

《諸子》:『羿弊十日.』

《諸子》:『羿가 열 개의 해를 넘어뜨렸다.』

梅注:『孫無撓曰:按《離騷》羿焉彈日. 彈, 射也.』

梅注:『孫無撓가 이르기를: 생각건대, 《離騷》에 ‘예는 어이하어 해를 쏘았나’라고 되어있는데, 彈(필:쏘다)은 쏘다 이다.』

《淮南子·本經訓》:『逮至堯之時, 十日并出, 焦禾稼, 殺草木, 而民無所食. 猋隄, 蠶齒, 九嬰, 大風, 封豨, 脩蛇, 皆爲民害. 堯乃使羿誅蠶齒于疇華之野, 殺九嬰于凶水之上, 繳大風于青丘之野, 上射十日而下殺溟涸, 斷脩蛇于洞庭, 禽封豨于桑林, 萬民皆喜. 置堯以爲天子, 于是天下廣狹險易遠近, 始有道里.』

《淮南子·本經訓》:『요임금의 때에 이르러, 열 개의 해가 나란히 나와, 벼 곡식을 말려 죽이고 풀과 나무를 태워 죽여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다. 알유·이빨·아홉 어린애·큰바람·큰 돼지·긴 뱀 등은 모두가 백성의 해가 되었다. 요임금은 이에 예를 시켜 이빨을 주화의 들에서 죽이었고, 아홉 어린애를 흥한 물 위에서 죽였고 큰 바람을 푸른 언덕의 들에서 화살로 죽이었고, 위로는 열 개의 해를 쏘았고, 아래로는 알유를 죽였으며, 동정에서 긴 뱀을 잘랐으며, 상림에서 큰 돼지를 사로잡았으니,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였다. 요임금을 천자로 두자 천하는 넓고 좁고 험하고 쉽고 멀고 가까운 것은 비로소 도리가 있게 되었다.』

范注:『《天問》『羿焉彈日? 烏焉解羽?』

范注:『에는 어찌 해를 쏘았나? 까마귀는 어찌 깃털을 떨어뜨렸나?』

王注:『《淮南》言堯時十日並出,草木焦枯,堯令羿仰射,十日中其九日,日中九鳥皆死,墮其羽翼。』案《淮南》語在《本經訓》。

王注:『《회남자》에는 요임금 때에 열 개의 해가 나란히 나와 풀과 나무가 말라죽자, 요임금은 예를 시켜 우러러 쏘게 하자, 열 개의 해 가운데에서 그 아홉 개의 해를 맞추었다. 해 가운데의 아홉 까마귀가 모두 죽으면서 그 깃털을 떨어뜨렸다.』 생각건대, 《회남자》의 말은 《본경훈》에 있다.

《斟詮》:『《說文》弓部:『彈, 𠄎也, 從弓, 畢聲。《楚辭》曰:『焉焉彈日。』段注:『屈原賦《天問》篇文, 今本寫作羿, ……』……『彈』爲正字, 其作『彈』者形誤, 作『斃』者乃音假, 仍宜從許慎所見漢本《楚辭》作『彈』爲是, 不必從唐本作『斃。』又:『案彥和此文作『夷羿』, 蓋涉《天問》『帝降夷羿, 革孽夏氏』之語而混用, 王逸此語注云:『夷羿, 諸侯, 弑夏后相者也。』是夷羿乃弑夏后相之有窮后羿, 與堯時射日之羿截然爲二人。《論語·憲問》:『羿善射。』孔注:『羿, 有窮國之君, 篡夏后相之位, 其臣寒浞殺之。』』

《斟詮》:『《설문해자》弓部:『彈(필)은 쏘다 이다. 부수는 弓을 따르며, 필이 발음이다. 《楚辭》에 이르기를: 『焉는 어찌하여 해를 쏘았나.』라고 하였는데, 단옥재 주에 따르면, 『屈原의 賦《天問》篇의 문장이다. 오늘날의 본에는 『焉』를 『羿』로 쓴다. ……』……『彈』은 正字가 되고, 『彈』자로 쓰는 것은 한자의 모습이 비슷해서 생긴 잘못이다. 『斃』자로 쓰는 것은 그 발음을 빈 것으로, (《설문해자》의 작자인) 허신이 본 漢代 판본의 《楚辭》에는 『彈』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옳고 이를 따라야 마땅하다. 당사본을 좇아서 『斃』자로 할 필요가 없다.』 또 『생각건대, 유희의 이 문장에는 『夷羿』라고 되어있는데, 《天問》에 이르면 『황제는 夷羿를 항복시키고, 夏氏를 혁멸하였다』라는 말로 섞어 쓰고 있다. 왕일은 이 말에 대하여 『夷羿는 諸侯이고 夏나라 임금 相을 죽인 자이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이에는 바로 하나라 임금 상을 시해한 유궁국의 임금 예로서, 요임금 때에 해를 쏘 예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다. 《論語·憲問》: 『羿는 활을 잘 쏘았다.』孔注: 『에는 유궁국의 임금으로 하나라 임금 상의 제위를 찬탈하였으나, 그 신하 한착이 그를 죽였다.』』

〔七〕《校證》:『『木夫』原作『木天』, 王惟儉本作『一夫』, 梅從譚改, 注云:『按《招魂》云:『一夫九首, 拔木九千。』……』今按唐寫本正作『木夫。』黃注:『《招魂》:『一夫九首, 拔木九千些。』王注:『言有

-151-

丈夫一身九首，強梁多力，從朝至暮，拔大木九千株也。」

《校證》:『『木夫』는 원래 『木天』으로 되어있고, 王惟儉本에는 『一夫』라고 되어있고, 梅씨 본은 사씨본을 좇아서 바꾸면서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생각건대, 《招魂》에,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사내가 나무 구천 그루를 뽑는구나.」라고 하였다. ……」 지금은 당사본에는 『木夫』라고 제대로 되어있다.』 黃注:『《招魂》: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사내가 나무 구천 그루를 뽑는구나.』 王逸 주:『몸뚱이는 하나에 아홉 개의 머리가 있는 사내가 있었는데, 뼈가 세고 힘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 구천 그루를 뽑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八〕《招魂》:『土伯九約，其角鬻鬻些。……參目虎首，其身若牛些。』注:『土伯，后土之侯伯也。……其貌如虎，而有三目，身又肥大，狀如牛也。』《斟詮》:『案此與上則皆見《招魂》，彥和引之，足徵彥和所見《楚辭》列《招魂》爲屈原之作也。』斯波六郎:『案如下文所明言『固知《楚辭》者，……』此段併論屈宋之作，引作宋玉之作，並不抵觸。』

《招魂》:『땅의 신은 모습이 구불구불하고 그 뿔은 날카롭구나. 눈은 세 개인데, 머리는 범의 머리에, 그 몸은 소처럼 생기었구나.』注:『토백은 후토의 후백이다.…… 그 모습이 범과 비슷하였는데, 눈이 세 개가 달려 있었고 몸뚱이 또한 뚱뚱하고 커서 소처럼 생기었다.』《斟詮》:『생각건대, 이 내용과 위의 내용은 모두 《招魂》에 보인다. 유헬이 이것을 인용한 것을 보건데 유헬이 본 《楚辭》에는 《招魂》를 屈原의 작품으로 보았음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斯波六郎:『생각건대, 아래 문장에서 분명히 『진실로 《楚辭》가 ……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단락은 굴원과 송옥의 작품들을 더불어 논의하고 있으므로, 송옥의 작품을 인용한 것은 결코 논의에 저촉되지 않는다.』(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 『土伯，后土之侯伯也。約，屈也。鬻鬻，猶狺狺，角利貌也。言地有土伯，執衛門戶，其身九屈，有角鬻鬻，主觸害人也。』土伯은 后土의 侯伯이다. 約은 굽은 것이다. 鬻鬻(의의: 뿔 뾰족하다)는 으르렁 거리며, 뿔이 날카로운 모습이다. 땅의 신 토백이 무기를 쥐고서 출입문을 지키는데, 그 몸은 아홉 굽이에 그 뿔은 날카로워서 주로 찢러 사람을 다치게 힘을 말한다.』

〔九〕『譎怪』，譎詐奇怪。

「譎怪(홀괴: 譎(홀:속이다) 怪(괴: 괴이하다))」, 기괴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

〔一〇〕《離騷》:「雖不周于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王注:「彭咸, 殷賢大夫, 諫其君不聽, 自投水而死. 遺, 餘也. 則, 法也. 言己所行忠信, 雖不合于今之世, 願依古之賢者彭咸餘法, 以自率厲也。」

《離騷》:「비록 오늘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지라도, 팽함(彭咸)이 남기신 바른 도리에 기대고 싶구나」 왕일 주:「팽함은 은나라 현대부로, 그 임금에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遺(유)는 남기는 것이다. 則(칙)은 법도이다. 자신의 행동이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지만, 비록 오늘날의 세상과는 맞지 않더라도, 옛날 현자인 팽함(彭咸)이 남긴 법도를 쫓아, 스스로 엄격함을 따르고 싶다는 말이다.」(홍윤기 번역 주: 「왕일 주:『周, 合也.』 周는 어울리는 것이다.」

〔一一〕《九章·悲回風》:「浮江淮而入海兮, 從子胥而自適。」從子胥而自適, 意謂準備投水而死, 追隨子胥. 洪注:「自適, 謂順適自志也. 《史記·伍子胥傳》:吳王將北伐齊, ……伍子胥諫王釋齊而先越, 而吳王不聽. 太宰嚭既與子胥有隙, 因讒之. 吳王使使賜伍子胥屬鏹之劍曰:『子以此死.』伍子胥乃仰天嘆, 告其舍人曰:『必抉吾眼懸吳東門之上, 以觀越寇之入滅吳也.』乃自剄死. 吳王聞之大怒, 乃取子胥尸, 盛以鴟夷革, 浮之江中.」

《九章·悲回風》:「장강과 회수를 떠다니다가 바다에 이르노니, 오자서를 쫓아 맘껏 놀리라.」 ‘오자서를 쫓아 맘껏 논다’는 것은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일컫는다. 홍홍조 注:「맘껏 논다’는 것은, 자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일컫는다. 《사기·오자서전》에 “오왕이 장차 제나라를 치려함에…… 오자서는 왕에게 제나라에서 손을 떼고 먼저 월나라를 치도록 간언하였으나, 오나라 왕이 듣지 않았다. 태제 嚭(비)는 이미 자서와 틈이 있어서, 그를 헐뜯었다. 오왕은 사신을 시켜 오자서에게 촉루의 검을 하사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 검으로 죽으시오』라고 하였다. 오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며, 그 비서에게 말하였다: 『반드시 나의 눈알을 도려내어 오나라 동문의 위에 걸어놓아라. 월나라 놈들이 오나라에 쳐들어 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꼴을 보리라』 하고는 이내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오왕은 (오자서의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하여 오자서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어 말가죽부대에 담아 강물에 띄워버렸다.」(홍윤기 번역 주 鴟夷(치이): 가죽 부대.)

〔一二〕「狷狹」, 「狷」謂狷介, 不肯同流合污, 「狹」謂胸襟狹隘.

「狷狹(견협)」의 「狷(견)」은 고집이 세고 절개가 굳어서 더러운 것에 합치되지 않으려는 것이며, 「狹(협)」은 마음이 좁은 것이다.

[一三]《招魂》:「士女雜坐, 亂而不分些。」王注:「言醕飽酣樂, 合罇促席, 男女雜坐, 比肩齊膝, 恣意調

-152-

戲, 亂而不分別也。」

《招魂》:「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앉아, 어지러이 분별이 없어라。」왕일 주: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으며 음악을 즐기며, 술잔을 부딪치며 자리를 꼭 끼게 앉고, 남녀가 뒤섞여 앉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같이하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장난을 치고, 어지러이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一四]《招魂》:「娛酒不廢, 沈日夜些。」王注:「言晝夜以酒相樂也。」朱注:「不廢, 猶言不已。」酒, 沈迷于酒. 《楚辭補注》:「此皆宋玉之詞, 非屈原意, 自漢以來, 靡麗之賦, 勸百而諷一, 其流至于齊梁而極矣, 皆自宋玉倡之。」

《招魂》:「술을 즐겨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빠져있네」왕일 주:「밤낮으로 술로 서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주희 주:「不廢(불폐)는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酒(면: 빠지다)은 술에 빠져 정신이 혼미한 것이다.《楚辭補注》:「이것은 모두 송옥의 詞이지, 굴원의 뜻이 아니다. 한나라 이래로, 아름다운 부는 백 가지를 권고하고 한 가지를 풍자하였으니, 그 흐름이 제나라와 양나라에 이르러 끝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두 송옥에서부터 불리어진 것이다。」

[一五]「舉」與上文「指」字相對成文, 當卽指出之意. 唐寫本「權」作「歡」.

「舉(거)」자는 위의 문장 「指(지)」자와 서로 대구를 이루어, ‘가리키다’는 뜻이다. 唐寫本에는 「權(환: 기뻐하다)」자가 「歡(환: 기뻐하다)」자로 되어있다.

[一六] 唐寫本「摘」作「指」. 橋川時雄:「《楚辭》夫蓉館, 汲古閣本作『擿』.」《綴補》:「按上文『指以爲樂』, 此文『摘』作『指』, 與上『指』字複, 疑涉上文而誤. 《楚辭補注》本『摘』作『適』, 古字通用.」

唐寫本에는 「摘(적: 따다)」자가 「指(지: 가리키다)」자로 되어있다. 橋川時雄:「《楚辭》의 夫蓉館, 汲古閣本에는 『擿(적: 들추다)」자로 되어있다.」《綴補》:「생각건대, 위의 문장 『指以爲樂』은, 이 문장에서 『摘』자가 『指』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指』자와 겹치기 때문에, 위 문장에 미쳐보면 잘못이 아닐까한다.

《楚辭補注》本에는 『摘』자가 『適』자로 되어있는데, 이 두 글자는 옛 자가 서로 통하여 쓰인다.]

〔一七〕唐寫本「乎」作「於」.

唐寫本에 「乎」자는 「於」자로 되어있다.

《注訂》:「摘此四事, 指上四事皆怪異之文, 而異乎經典. 然屈宋之旨, 多託諷諷, 此朱子所謂『生于繾綣惻怛, 不能自已之至意』. 讀者不可不辨也。」

《注訂》:「이 네 가지 일의 요점을 지적하면서,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일들은 하나하나 모두 괴이한 문장으로 되어있어서, 경진과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굴원과 송옥의 의도는 대체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은밀히 풍간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자가 말하는 바의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슬퍼서 생겨나는 것이지, 자신이 의도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독자가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한다.」

05-08 故論其典誥與如彼〔一〕, 語其夸誕與如此〔二〕, 固知《楚辭》者, 體憲于三代〔三〕, 而風雜于戰國〔四〕, 乃《雅》《頌》之博徒〔五〕, 而諷賦之英傑也〔六〕.

홍윤기 번역: 그러므로, 《초사》의 경진적인 성격을 논해보니 저와 같았고, 《초사》의 과장되고 황당한 성격을 논해보니 이와 같았다. 따라서, 《초사》는 그 체제는 夏殷周 三代에서 본받았으며, 풍격은 전국시기의 것이 섞여있으니, 《아》와 《송》을 대표로 하는 《시경》의 입장에서 보면 망나니 무리이지만, 辭賦의 입장에서 보면 빼어난 영웅인 것이다.

〔一〕「典誥」即「同于典誥」之意. 「典誥」雖屬《尚書》, 在此也兼指其他經書, 正如「同于《風》《雅》者也」之「《風》《雅》」不專指《詩經》.

「전고」는 「전고와 같다」의 뜻. 「전고」는 비록 《상서》에 속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밖의 경서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풍》《아》와 같다.」의 「《風》《雅》」가 오로지 《시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二〕「夸」, 元刻本, 弘治本, 張之象本, 兩京本俱作「本」. 梅注本改作夸, 黃注本從之. 唐寫本正作「夸」. 曹學佺批:「摘其夸誕, 此愛而知惡也. 彦和欲扶《風》《雅》之切如此.」

「夸(과: 과장되다)」자는, 元刻本, 弘治本, 張之象本, 兩京本에는 모두 「本」자로 되어있다. 梅注本에는 「夸」자로 고쳤고, 黃注本은 이를 따랐다. 唐寫本에는 「夸」자로 옳게 되어있다. 曹學佺이 비평하기를, 「그 과장되고 허망함을 따

저보니, 이것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싫은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유희는 《시경》이 사실에 부합함이 이와 같음을 들어올리고자 하였다.

「夸誕」, 謂誇張, 荒

-153-

誕. 「論其典詰則如彼」, 是概括屈原之文所同于經典者四事; 「語其夸誕則如此」, 是泛指屈原之文所異于經典者四事.

「과탄」은 과장되거나 황당한 것. 「그 전고를 논한 것이 저와 같다」는 것은 굴원의 문장이 경전과 같은 네 가지 것을 개괄한 것이고, 「그 과장됨을 말한 것이 이와 같다」는 굴원의 문장이 경전과 다른 네 가지 일을 가리킨다.

[三] 「憲」字元刻本、弘治本不誤. 馮舒校云: 「『憲』, 朱興宗改作『慢』」, 洪注《楚辭》附載此篇同作『夸』、『慢』. 梅六次本改作『慢』, 注云: 「元作憲, 朱云: 宋本《楚辭》作『體慢』」.

「憲」字는 元刻本、弘治本에는 틀리지 않았다. 馮舒가 교하면서, 「『憲』字는 朱興宗이 『慢』자로 바꾸었고, 홍홍조의 《楚辭》는 이 편을 보태어 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夸』、『慢』자로 되어있다.」 梅六次本은 바꾸어 『慢』로 하였고, 주에 「원각본에는 『憲』자로 되어있는데, 주홍중이 『宋本《楚辭》』에는 『體慢』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校證》: 「『體憲』, 梅據朱引宋本《楚辭》作『體慢』, ……《蘇東坡詩集·林子中以詩寄文與可及余與可既沒追和其韻》施注亦作『體慢』. 案唐寫本、王惟儉本作『體憲』, 今據改. 屈子之文, 體憲三代, 故能開經旨. 『憲』讀『憲章』之『憲』. 《詔策》篇『體憲風流』, 正以『體憲』連文」.

《校證》: 「『體憲』은 梅씨본은 朱씨본이 『宋本《楚辭》』에는 『體慢』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였다. ……《蘇東坡詩集·林子中以詩寄文與可及余與可既沒追和其韻》의 施注 또한 『體慢』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唐寫本、王惟儉本에는 『體憲』으로 되어있어서, 오늘날 이에 따라 바꾼다. 굴원의 문장은 본보기를 삼대에서 취하였기에 경전의 가르침을 體化할 수 있었다. 『헌』은 『헌장』의 『헌』으로 읽는다. 《詔策》편에 『體憲風流』라는 문장에서 『體憲』을 이어서 옮겨 쓰고 있다.

[四] 《校證》: 「『雜』原作『雅』, 施注蘇詩亦作『雅』. 涉下文『雅頌』而誤, 今從唐寫本

改。此言屈子之文，雖風雜于戰國，然亦自鑄偉辭也。」

《校證》:「『雜』자는 원래 『雅』자로 되어있으며, 施씨가 주를 단 蘇軾의 시에도 또한 『雅』자로 되어있다. 아래 문장의 『雅頌』에 미처보면 잘못되어있다. 지금은 당사본을 따라서 바꾼다. 이것은 굴원의 문장이, 비록 분위기에 있어서 전국시대의 것이 뒤섞여있기는 하지만, 또한 위대한 문사를 스스로 빚어냈음을 말하는 것이다。」

范注:「『體慢』應據唐寫本作『體憲』. 憲, 法也. 體法于三代, 謂同于《風》《雅》之四事. 『風雅』, 亦應據唐寫本作『風雜』. 風雜于戰國, 謂異于經典之四事。」

범문란 注:「『體慢』은 당사본을 따라서 『體憲』으로 되어야 마땅하다. ‘憲’은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 법칙이 삼대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경전에 기록된 네 가지 일과 들어맞는다는 것을 일컫는다. 『風雅』는 또한 당사본을 따라서 『風雜』으로 되어야 마땅하다. 분위기에 있어서 전국시대의 것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전과 다른 네 가지 일을 일컫는다。」

《校釋》:「唐寫本『慢』作『憲』, 『雅』作『雜』是也. 按屈子之文體法三代, 故能『取鎔經旨』; 風雜戰國, 故又『自鑄偉辭』. 此二字于辨章屈文最爲切要, 當據改。」

《校釋》:「唐寫本에는 『慢』자가 『憲』자로 되어있고, 『雅』자가 『雜』자로 되어있는데, 당사본이 옳다. 생각건대, 굴원의 문장은 그 내용을 삼대에서 본받고 있어서, 『경전의 가르침을 체화하고 있다』; 그 분위기는 전국시대의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위대한 문사를 빚어낼 수 있었다』. 이 두 글자는 굴원의 문장을 분명히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요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본에 따라 바꾸어야만 한다。」

《校注》:「《時序》篇云:『屈平聯藻於日月, 宋玉交彩於風雲, 觀其艷說, 則籠罩《雅》《頌》, 故知曄燁之奇意, 出乎縱橫之詭俗也.』正可作爲『風雜於戰國』一語注脚。」

《校注》:「《時序》篇에, 『굴원은 아름다운 표현을 엮어서 해와 달과도 그 빛을 다투었고, 송옥은 고운 빛깔을 섞어서 바람과 구름을 그려내었다. 이들의 고운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와 《송》을 대표로 하는 《시경》을 뒤덮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부신 기이한 뜻은 종횡가류의 궤변적인 습속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분위기에 있어서 전국시대의 것이 뒤섞여 있다』는 내용의 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藝概·詩概》:「劉勰《辨騷》謂《楚辭》『體慢于三代, 風雅于戰國』, 顧論

其體，不如論其志，志苟可質諸三代，雖謂異地則皆然可耳。」

《藝概·詩概》:「유협은 《변소》에서 《초사》를 일컬어 『체제는 삼대의 작품보다 못하고, 풍격은 전국시기의 작품보다 고아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체제를 논의한 것이 그 뜻을 논의한 것만 못하였다. 뜻은 진실로 三代에서 바탕을 삼을 만 하여, 비록 다른 점을 말하였으나 모두 그럴듯하였다.」

-154-

《樹詮》:「上文指屈作『同於《風》《雅》』者四事, 『異乎經典』者亦有四事. 故以『論其典誥則如彼, 語其夸誕則如此』二語分承. 今曰『體憲於三代』者, 卽指『同於《風》《雅》』之『典誥』而言; 曰『風雜於戰國』者, 則指『異乎經典』之『夸誕』而言; 『憲』與『典誥』, 『雜』與『夸誕』, 兩相論對, 若作『風雅於戰國』, 非惟理脈不貫, 亦且命義兩歧.

《樹詮》:「윗글은 굴원의 작품이 『《시경》과 같은 짐』 네 가지와 『경전과 다른 짐』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초사》의 경전적 성격이 저와 같음을 논하였고, 그 과장되고 황당한 성격이 이와 같음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초사》의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각기 나누어 서술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은·주 삼대에서 본받고』라는 것은 바로 『《시경》과 같은』 『경전적 성격』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분위기는 전국시기의 것이 뒤섞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경전과 다른』 『과장되고 허황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본받고』와 『경전적 요소』, 『뒤섞이다』와 『과장되고 허황된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만약에 『분위기가 전국시기보다 전아하다』라고 한다면, 이치상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五] 《史記·魏公子列傳》:「公子聞趙有處士毛公, 藏于博徒。」《史記·袁盎列傳》:「安陵富人有所謂盎曰: 吾聞劇孟博徒。」集解:「如淳曰: 『博盪之徒, 或曰博戲之徒。』」《知音》篇:「彼實博徒, 輕言負誑。」

《史記·魏公子列傳》:「公子는 趙땅에 毛公이라는 處士가 만나니 무리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다.」《史記·袁盎列傳》:「안릉에 부자 원앙이란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듣던대, 극맹이 만나니라고 하던데.」集解:「如淳曰: 『널리 방탕한 무리 혹은 널리 즐기는 무리라고 한다.』」《知音》篇:「그는 실제로 만나니 무리로서, 말을 가볍게 놀리다가 비난을 짊어지게 되었다.」

范注:「博徒, 人之賤者。」意指《楚辭》比《詩經》差一點。《注訂》:「此謂比

之《雅》《頌》，固遜之如博徒，于辭賦則崇之如英傑也。」

范注:「博徒(박도)는 친한 사람이다.」《楚辭》가 《詩經》에 비하여 좀 못함을 가리킨다.

《注訂》:「此謂比之《雅》《頌》，固遜之如博徒，于辭賦則崇之如英傑也。」

《注訂》:「이는 《초사》를 《시경》에 비교하면 망나니 무리처럼 손색이 있지만, 辭賦에 비교하면 영웅호걸처럼 받들만함을 가리킨다.」

[六] 橋川時雄:「汲古閣本『詞賦之英傑也』下洪注云:『此語施于宋玉可也。』」

橋川時雄:「汲古閣本에는 『詞賦之英傑也』아래에 홍홍조는 『이 말은 송옥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주를 달았다.」

明許學夷《詩源辨體·楚》:「劉勰云:『《離騷》軒翥詩人之後，奮飛辭家之前，……乃《雅》《頌》之博徒，而詞賦之英傑也。』按淮南王、宣帝、揚雄、王逸皆學以方經，而班固獨深貶之。劉勰始折衷，爲千古定論，蓋屈子本辭賦之宗，不必以聖經列之也。」

明나라 許學夷《詩源辨體·楚》:「劉勰은 『《離騷》는 《시경》詩人の 뒤에서 드높이 치솟아 날았으며, 漢代 賦家の 앞에서 힘차게 펼쳐 날아올랐다. ……《시경》의 입장에서 보면 망나니 무리이지만, 辭賦의 입장에서 보면 뛰어난 영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회남왕·선제·양웅·왕일은 모두 경서와 들어맞는다고 《초사》를 추켜세웠으나, 반고는 홀로 《초사》를 깊이 깎아 내렸다. 유희은 비로소 절충하여, 천고의 정론을 세웠으니, 굴원이 辭賦의 祖宗이기는 하지만, 성스런 경전의 반열에 《초사》를 두지는 않았던 것이다.」

《藝概·賦概》:「《騷》爲賦之祖。太史公《報任安書》:『屈原放逐，乃賦《離騷》。』《漢書·藝文志》:『屈原賦二十五篇。』不別名騷。劉勰《辨騷》曰:『名儒辭賦，莫不擬其儀表。』又曰:『《雅》《頌》之博徒，而辭賦之英傑也。』」

《藝概·賦概》:「《이소》는 賦의 祖宗이다. 사마천은 《보임안서》에서 굴원이 쫓겨나서 《이소》를 지었다.』고 하였고, 《한서·예문지》에서는 『굴원의 부 25편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소라고 특별하게 이름 붙이지는 않았다. 유희은 《변소》편에서 『이름난 사부가 치고 《초사》를 흉내 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또 『《시경》의 입장에서 보면 망나니 무리이지만, 辭賦의 입장에서 보면 뛰어난 영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155-

05-09 觀其骨鯁所樹，肌膚所附〔一〕，雖取鎔經旨，亦自鑄偉辭〔二〕。

간주: 偉(위: 아름답다/기이하다/성대하다)

홍윤기 번역: 그 세워진 뼈대와 거기에 붙은 근육과 살갓을 보면, 경전의 가르침을 녹여 취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아름다운 문사를 스스로 빚어내고 있다.

〔一〕 《抱朴子·辭意》:「屬筆之家, 亦各有病. 其淺者, 則患乎妍而無據, 證援不給, 皮膚鮮澤而骨鯁洵弱也.」 按此骨鯁即骨幹. 《文心·附會》篇:「以情志爲神明, 事義爲骨髓, 辭采爲肌膚, 宮商爲聲氣.」

《포박자·사의》:「글을 쓰는 이들은 또한 각기 병폐가 있다. 그 얕은 자는 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걱정하나 근거가 없고, 증거로 끌어당기어 쓰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니, 피부는 반지르르하지만 뼈대는 매우 허약하다.」 생각건대 이 骨鯁(골경)이란 바로 뼈대이다. 《문심조룡·부회》편에 「감정과 이성을神明으로 삼고, 사건의 내용을 골수로 삼으며, 문채를 피부로 삼고, 음울을 소리의 기운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樹詮》:「『骨鯁』本應作『骨髓』.」

《樹詮》:「『骨鯁』은 본래 『骨髓』이 되어야 한다.」(홍윤기 번역 주 鯁(경:생선뼈) 髓(경: 가지 뼈가 목에 걸리다./튼튼한 뼈대)) 《注訂》:「骨髓指意志, 肌膚指文采.」 《注訂》:「뼈대는 의지를 가리키며, 피부는 문채를 가리킨다.」

〔二〕 范注:「唐寫本『偉』作『緯』, 誤.」

范注:「唐寫本에 『偉』자는 『緯』자로 되어있는데 틀리다.」

《校證》:「『旨』原作『意』, 唐寫本、《玉海》二〇四作『旨』, 今定從之.」

《校證》:「『旨』자는 원래 『意』자인데, 唐寫本、《玉海》二〇四에는 『旨』로 되어있어서, 이에 정하여 따른다.」

《札記》:「二語最諦, 異于經典者, 固由自鑄其詞; 同于《風》《雅》者, 亦再經鎔煉, 非徒貌取而已.」

《札記》:「두 구절은 가장 적절하다. 경전과 다른 점은 그 문사를 제 스스로 빚었기 때문이요; 《시경》과와 같은 점은 또한 다시금 녹이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 모양새만을 좇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藝概·賦概》:「或謂楚賦『自鑄偉辭』, 其『取鎔經義』, 疑不及漢. 余謂楚取于經, 深微周浹, 無跡可尋, 實乃較漢尤高.」

《藝概·賦概》:「혹자는, 초사는 『제 스스로 아름다운 문사를 빚었다』,」

『경전의 내용을 녹여 취했다』고 하면서 漢代의 작품에는 미친다고 의심한다. 본인은 《초사》가 경전적 요소를 취하여 심오함이 두루 배어있어, 탐색할만한 흔적이 없으니, 실로 한부에 비교하자면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한다.」(홍윤기 번역 주·《문심조룡》의 비평 가운데 《초사》가 한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유희재의 《문심조룡》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事類》篇云:「屈宋屬篇, 號依詩人, 雖引古事, 而莫取舊辭。」這話是指用事說的, 却也可以和「雖取熔經意, 亦自鑄偉辭」之說互相補充.

《事類》篇에 「굴원·송옥의 작품들을 보면, 《시경》의 시인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비록 옛 일을 끌어들이기는 하였지만, 《시경》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것은 없다.」 이 말은 인용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비록 경전의 내용을 녹여 취하여, 또한 아름다운 문사를 제 스스로 빚었다」라는 구절과 서로 보충할 만하다.

《注訂》:「因其志行本于忠誠, 故曰取鎔經義; 因其文采能變化《風》《雅》, 故曰自鑄偉辭。」

《注訂》:「굴원의 뜻과 행동은 충성에 바탕하고 있으니, ‘경전의 내용을 녹여 취하였다’고 말한 것이고, 그 문체는 《시경》을 변화시킨 것이니, ‘제 스스로 아름다운 문사를 빚어냈다’고 말한 것이다.

《講疏》:「『取鎔經意』與『骨鯁所樹』相呼應, 是就屈原作品的『質』(內容)講. ……而『自鑄偉辭』則是與『肌膚所附』相呼應, 乃是就屈原作品的『文』(形式)講.」

《講疏》:「『경전의 내용을 녹여 취하였다』와 『세워진 뼈대』는 서로 호응한다. 굴원 작품의 『질』(내용)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 『제 스스로 아름다운 문사를 빚었다』는 『거기에 붙은 피부』와 서로 호응한다. 굴원 작품의 『문』(형식)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05-10 故《騷經》、《九章》, 朗麗以哀志(一), 《九歌》、《九辯》, 綺靡以傷情(二); 《遠遊》、《天問》, 瓌詭而惠巧(三); 《招魂》、《大招》, 耀艷而深華(四). 《卜居》標放言之致(五), 《漁父》寄獨往之才(六).

홍윤기 번역: 그러므로 《이소》와 《구장》은 맑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 뜻을 안타깝게 하고, 《구가》《구변》은 비단 무늬 같은 표현으로 감정을 서럽

게 하고, 《원유》《천문》은 괴이한 표현으로 기묘함을 베풀고, 《초혼》《대초》는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화려함을 깊이하고, 《복거》는 거침없는 말투를 드러내고, 《어부》는 홀로 제 길을 가는 본성을 표현한다.

[一] 唐寫本無「故」字。王逸《離騷經序》：「《離騷經》者，屈原之所作也。……離，別也；騷，愁也；經，徑也。言已放逐別離，中心愁思，猶依道徑以風諫君也。……《離騷》之文，依詩取興，引類譬諭，故善鳥香草以配忠貞，惡禽臭物以比讒佞，靈脩美人以媲於君，宓妃佚女以譬賢臣，虬龍鸞鳳以託君子，飄風雲霓以爲小人。其辭溫而雅，其義皎而朗，凡百君子莫不慕其清高，嘉其文采，哀其不遇，而愍其志焉。」前人因爲尊重《離騷》，所以稱之爲「經」。

唐寫本에는 「故」자가 없다. 王逸《離騷經序》：「《이소경》은 굴원이 지은 것이다. …… 離는 떨어지는 것이며, 騷는 근심이다; 經은 길이다. 자신이 쫓겨나 떨어져 이별하여 마음에 근심스러워 길에 의지하여 임금을 풍자 간언하는 것이다. …… 《이소》의 문장은 《시경》에 의지하여 흥의 방법을 취하였고, 범주를 끌어들이며 비유하여 착한 새와 향내나는 풀로 충성스럽고 정절 있는 사람을 비유하였고, 나쁜 날짐승과 구린내 나는 물건으로 고자질꾼과 아첨꾼을 비유하였으며, 영수와 미인으로 임금을 비유하였고, 복비와 아리따운 여인으로 현명한 신하를 비유하였고, 규와 용, 난새와 봉새로 군자에 비유하였고, 회오리바람 구름과 무지개로 소인에 비유하였다. 그 문사는 함축적이나 전아하고 그 내용은 밝게 빛나면서도 맑으니, 수많은 군자들이 그 맑고 드높음을 경모하고, 그 문체를 기리고, 그 때 잘못 만남을 슬퍼하여 그 뜻을 안타깝게 생각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옛사람들은 《이소》를 존중하여 그를 「경」이라고 부른 것이지, 왕일이 말하는 것처럼 길에 의지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소경》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王逸《九章序》：「屈原放於江南之野，思君念國，憂思罔極，故復作《九章》。章者，著也，明也。言已所陳忠信之道甚著明也。」按「朗」指「其義皎而朗」，「麗」謂雅麗，「哀志」謂使讀者「哀其不遇，而愍其志。」

王逸《九章序》：「굴원은 강남의 들로 쫓겨났는데, 임금을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여 근심스런 생각이 끝이 없었다. 따라서 또 《구장》을 지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이 펼친 바의 충성스런 마음의 도리가 매우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생각건대, 「朗(랑: 밝다)」은 「그 뜻이 깨끗하고 밝은」 것을 가리키고, 「麗(려: 곱다)」는 전아한 아름다움을 일컬으며, 「哀志,

는 독자로 하여금 「때 잘못 만남을 슬퍼하여, 그 뜻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集釋稿》:「太史公云:『余讀《離騷》、《天問》、《招魂》、《哀郢》, 悲其志。』(《史記·屈原列傳》)此即劉勰所謂『哀志』也。《離騷》固屬離憂之作, 然哀志之句亦多。《屈原列傳》云:『其存君興國, 而欲反覆之, 一篇之中, 三致志焉。』……《離騷》……下半部自『將往觀乎四荒』起, 別開新意, 筆調轉為『朗麗』, 令讀之者有神采飛揚之感。」

《集釋稿》:「사마천은 『내가 《이소》·《천문》·《초혼》·《애영》을 읽었는데 굴원의 뜻을 슬퍼하였다』고 하였다.(《사기·굴원열전》) 이것은 유희가 말한 『뜻을 슬퍼하였다』이다. 《이소》는 이별의 근심으로 지은 것으로, 따라서 뜻을 슬퍼하는 구절이 또한 많다. 《굴원열전》에 이르기를 『굴원은 임금을 보존케하고 나라를 일으키고자, 충언을 되풀이하였으니, 한 편 안에 세 번 그 뜻에 이른다.』……《이소》……의 하반부 즉 『장차 황량한 네 곳을 가보리』에서부터 새로운 뜻을 따로 열어제치고 필체는 『맑고 아름다워』져서 읽는 이에게 정신이 들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二) 橋川時雄:「『歌』, 唐寫作『哥』. 時按:哥, 聲也, 古文以爲『歌』字, 《漢書》多用『哥』爲『歌』也。」

-157-

唐寫本「辯」作「辨」, 「綺靡」作「靡妙」.

橋川時雄:「『歌』자는 당사본에는 『哥』자로 되어있다. 교천시웅 본인 생각에, 哥(가:노래)는 노랫소리이며, 古文에는 이 글자를 『歌』자로 삼는다. 《漢書》에서는 여러 차례 『哥』자를 써서 『歌』자로 삼고 있다.」唐寫本에는 「辯」자가 「辨」자로 되어있으며, 「綺靡」는 「靡妙」로 되어있다.

王逸《九歌序》:「昔楚南郢之邑, 沅湘之間, 其俗信鬼而好祠. 其祠必作歌樂鼓舞以樂羣神. 屈原放逐, 竄伏其域, 懷憂苦毒, 愁思滯鬱: 出見俗人祭祀之禮, 歌舞之樂, 其詞鄙陋, 因爲作《九歌》之曲. 上陳事神之敬, 下見己之冤結, 託之以風諫.

王逸《九歌序》:「옛날 초나라의 남영 고을은 원수와 상수의 사이에 있었다. 그 풍속은 귀신을 믿고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노래와 음악과 북과 춤으로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였다. 굴원은 쫓겨나서, 그 지

역에 숨어 지내면서 근심걱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시름에 잠겨 울적함을 끓이다가. 속인들의 제사의 예법과 노래와 춤의 즐거움, 그 글의 비무함을 나와 보고서 《구가》의 노래를 짓는다. 위로는 신을 섬기는 존경심을 펼치고, 아래로는 자신의 한 맺힘을 드러내어 그에 의탁하여 풍자하고 간언한다.

王夫之《楚辭通釋·九歌序》:「熟繹篇中之旨, 但以頌其所祠之神, 而婉婉纏綿, 盡巫與主人之敬慕, 舉無叛棄本旨, 闕及己冤, 但其情貞者其言惻, 其志苑者其音悲。」

王夫之《楚辭通釋·九歌序》:「《구가》 가운데의 뜻을 깊이 풀어보면, 단지 그 제사 드리는 신을 찬송하면서 그 얽히고 이어진 감정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펼치면서 무당과 주인의 신에 대한 존경심을 다하면서, 자신의 본 마음을 거스르며 버리는 것 없이, 자신의 원통함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막고 있다. 그 감정이 옳은 사람은 그 말이 측은하고, 그 뜻이 우거진 사람은 그 노래가 슬프다.」(홍윤기 번역 주: 婉婉(완: 순하다. 만: 순박하다): 부드러운 모습. 纏綿(전: 얽히다. 면: 이어지다.): 얽힘. 闕(란: 가로 막다.))

王逸《九辯序》:「《九辯》者, 楚大夫宋玉之所作也. ……宋玉者, 屈原弟子也, 閔惜其師忠而放逐, 故作《九辯》以述其志。」

王逸《九辯序》:「《구변》은 초나라 대부 송옥이 지은 것이다. …… 송옥은 굴원의 제자로서, 그 스승이 충정을 바쳤으나 쫓겨난 것을 애석히 여겨 《구변》을 지어 그 뜻을 서술하였다.」

王夫之《楚辭通釋·九辯序》:「其詞激宕淋漓, 異于《風》《雅》, 蓋楚聲也。」

王夫之《楚辭通釋·九辯序》:「그 감정 표현이 물결이 부딪쳐 흐르는 듯 대담하여 가득히 젖어 있어서 《시경》과는 다르다. 초나라 소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文選》陸機《文賦》:「詩緣情而綺靡。」李善注:「綺靡, 精妙之言。」

《文選》陸機《文賦》:「시는 정을 좇아 곱다」李善注:「綺靡(기미)는 정묘한 말이다.」

橋川時雄:「按《楚辭》夫蓉館本《九辨》, 作『辨』是. 王逸序云:辨, 變也, 謂〔β+敕〕道德以變說君也. 故作『辯』非.」

橋川時雄:「생각건대 《楚辭》夫蓉館本《九辨》에는 『辨』자로 되어있고 옳다. 王逸은 序에서 이르기를 ‘辨(변: 분별하다)’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덕을 [β+敕]하여 임금을 기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辯』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리다.」

〔三〕《校證》:「唐寫本『惠』作『慧』, 古通。」范注:「《莊子天下篇釋文》:『瓌璋, 奇特也。』」「瓌」, 瓌的異體字, 奇偉。

《校證》:「唐寫本에는 『惠』자가 『慧』자로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통하였다。」范注:「《莊子天下篇釋文》:『瓌璋(괴이)는 기이하고 특별한 것이다。』」「瓌(괴)」자는 ‘瑰(괴)’자의 이체자이며, 기이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王逸《遠遊序》:「屈原履方直之行, 不容于世. …… 遂敘妙思, 託配仙人, 與俱遊戲, 周歷天地, 無所不到. 然猶懷念楚國, 思慕舊故, ……是以君子珍重其志而璋其辭焉。」

王逸《遠遊序》:「굴원은 곧고 바른 행동을 하여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 마침내 기묘한 생각을 펼쳐 신선에 기탁하여 더불어 노닐며 두루 하늘과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초나라를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 따라서 군자들은 그 뜻을 진중히 여겨 그 문사를 아름답게 여기었다。」

王逸《天問序》:「屈原放逐, 憂心愁悴, 彷徨山澤. ……見楚有先王之廟, 及公卿祠堂, 圖畫天

-158-

地山川神靈, 琦璋僑佹, 及古賢聖怪物行事, ……仰見圖畫, 因書其壁, 呵而問之, 以溲憤懣, 舒寫愁思。」

王逸《天問序》:「굴원이 쫓겨나서 근심에 잠겨 비쩍 마른 모습으로 산과 못을 방황하다가, …… 초나라에 선왕의 종묘 및 공경의 사당을 보았는데, (사당 안에는) 하늘과 땅 산과 내의 신령의 그림이 옥처럼 아름답고도 괴이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옛 현명한 성인과 괴물이 펼치는 행동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 우러러 그림을 보고, 그 벽에 쓰여진 글을 좇아 숨을 내쉬며 그 내용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분통한 마음을 쓸어 내리고 그리움의 마음을 펼쳐 썼다。」(홍윤기 번역 주: 琦璋(기위): 아름다운 옥. 진귀함. 僑佹(결: 기괴하다. 궤: 괴이하다): 괴이하다. 溲(설: 그치다))

本篇上文云:「康回傾地, 夷羿斃日, ……譎怪之談也。」所以說:「《遠遊》、《天問》, 瓌詭而惠巧。」

본 편의 윗 글에서 「공공이 대지의 기둥을 넘어뜨리고, 이예가 해를 쏘아

쓰러뜨린 것(《天問》)과,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원유》《천문》은 괴이한 표현으로 기묘함을 빼놓고」라고 한 것이다.

〔四〕王逸《招魂序》:「宋玉憐哀屈原忠而斥棄, 愁懣山澤, 魂魄放佚, 厥命將落, 故作《招魂》. 欲以復其精神, 延其年壽。」

王逸《招魂序》:「송옥은 굴원이 충정을 바쳤으나 내침을 당하여, 근심걱정으로 산과 못을 방황하고 낮이 나가 강물에 그 몸을 던져 죽은 것을 애달파하여 《초혼》을 지었다. 그 정신을 돌이켜서 그 수명을 늘이고자 하였다.」

《校證》:「『大招』原作『招隱』, 徐校、譚校作『大招』, 馮云:『招隱』, 《楚辭》本作『大招』, 下云『屈宋莫追』. 疑『大招』爲是.』案徐、馮、譚說是, 唐寫本、王惟儉本作『大招』, 今據改.』《札記》:「《招隱》, 宜從《楚辭補注》本作《大招》.」

《校證》:「『大招』는 원래 『招隱』으로 되어있다. 徐씨와 譚씨가 고쳐 『大招』로 하였다. 馮씨가 이르기를:『招隱』은 《楚辭》에 본래 『大招』라고 되어있는데, 그 아래에 『굴원과 송옥이 따를 수 없다』라고 하였다. 『大招』가 옳은 것 같다.』생각건대, 徐、馮、譚씨의 주장이 옳다. 唐寫本、王惟儉本에는 『大招』라고 바로 되어있어서, 이제 이에 근거하여 바꾸었다.』《札記》:「《招隱》은 《楚辭補注》본을 좇아서 마땅히 《大招》가 되어야 한다.」

王逸《大招序》:「《大招》者, 屈原之所作也, 或曰景差, 疑不能明也. 屈原放逐九年, 憂思煩亂, 精神越散, 與形離別, 恐命將終, 所行不遂, 故憤然大招其魂.

王逸《大招序》:「《대초》는 굴원이 지은 것이다. 혹은 경차라고도 하는데, 알 수는 없다. 굴원은 쫓겨나서 아홉 해가 되었는데, 걱정근심으로 정신이 갈수록 흩어져서 몸과 떨어져서 죽게 되었으니, 행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억울한 마음에 그 혼을 크게 불렀다.」

洪興祖《補注》:「屈原賦二十五篇, 《漁父》以上是也, 《大招》恐非原作.」

洪興祖《초사보주》:「굴원은 25편을 지었는데, 《어부》이상이 굴원이 지은 것이고, 《대초》는 아마 굴원의 작품이 아닌 것 같다.」

唐寫本『深』作『采』. 《校注》:「按唐寫本是. 『深』, 正作『采』, 蓋『采』初譌爲『深』, 後遂變爲『深』也.」

唐寫本에는 「深」자가 「采」자로 되어있다. 《校注》:「생각건대, 당사본이 옳다. 『深』자가 『采』자로 옳게 되어있는데, 아마도 『采』자가 처음에는 『采』자로 잘못되었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深』자로 변환 것이다.」

張立齋《文心雕龍考異》:「淮南小山有《招隱士》在《續楚辭》中, 彦和所引

不及賈誼以下諸篇，故從《大招》是。」又：「耀艷，文采外發也；深華，文采內蘊也。外發故曰耀，內蘊故曰深。深者，藏也。《考工記》：『梓人必深其爪。』卽藏其爪也。采、採、彩互通，與『耀』字不協，從『深』是，楊校非。」楊用脩批：「耀艷深華四字，尤盡二篇妙處，故重圈之。皮日休評《楚辭》幽秀古艷，亦與

-159-

此相表裏，予稍易之云：《招魂》耀艷而深華，《招隱》幽秀而古朗。」

張立齋《文心雕龍考異》：「淮南小山(홍윤기 번역 주-회남왕 유안을 가리킴)에게는 《招隱士》가 《續楚辭》가운데 있는데, 유희이 인용하고 있는 것에는 賈誼 이하의 여러 편들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大招》가 옳다。」 또：「耀艷(요염)은 文采가 밖으로 뿜어 나오는 것이고, 深華(심화)는 문체가 안으로 담겨있는 것이다. 밖으로 뿜어 나오기 때문에 빛난다 라고 말한 것이요,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깊다 라고 말한 것이다. 깊다고 하는 것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考工記》에, 『목수는 그 손톱을 반드시 깊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손톱을 감추는 것이다. 采, 採, 彩 세 글자는 서로 통하여, 『耀』와는 어울리지 않아서, 『深』을 따르는 것이 옳으며, 양씨의 교감은 틀렸다.」楊用脩가 비평하기를, 「耀艷“深華” 네 글자는 두 편에서 묘처를 더욱 다하였기에 이를 겹으로 두른 것이다. 皮日休는 《楚辭》를 ‘그윽하게 빼어나고 옛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런 평가는 이러한 평가와 서로 안팎을 이룬다. 내가 이를 좀 바꿔 말하자면, ‘《招魂》은 요염하면서도 깊이 아름답고, 《招隱》은 그윽하게 빼어나서 옛스러운 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다.」

橋川時雄：「《招魂》, 《楚辭》諸本俱謂宋玉作, 未知何據. 但《史記》太史公曰：『余讀《離騷》、《天問》、《招魂》、《哀郢》, 悲其志.』則當屬原作. 玩其氣調, 亦與《九歌》篇同. 而以《九辨》、《大招》較之, 殊似不逮. 然而彥和此篇引《招魂》云：『一夫九首, 土伯三目.』頗似以《招魂》爲原之辭, 當俟再考.」

橋川時雄：「《초혼》에 대하여, 《초사》의 여러 판본은 송옥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기》의 사마천은 『내가 《이소》·《천문》·《초혼》·《애영》을 읽었는데, 그 뜻을 슬퍼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굴원의 작품에 속해야 한다. 그 기초를 음미해보면, 또한 《구가》와 같다. 《구변》《대초》를 가지고 이를 비교해보면, 다르고 같음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유협은 이 편에서 《초혼》을 인용하여 『머리 아홉의 나무꾼, 눈 세 개 달린 땅의 신』이라고 하고 있어서, 《초혼》이 굴원이 지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금 고증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五〕王逸《卜居序》:「《卜居》者, 屈原之所作也, 屈原體忠貞之性而見嫉妬, ……乃往至太卜之家, 稽問神明, 決之蓍龜, 卜已居世, 何所宜行, 冀聞異策, 以定嫌疑, 故曰《卜居》也.」

王逸《卜居序》:「《복거》는 굴원이 지은 것이다. 굴원은 충정의 성격을 몸에 지녔으나 질투를 받았다. …… 그리하여 태복의 집에 가서, 신명에게 조아려 물으면서, 띠풀점과 거북점으로 자신이 세상에 머물면서, 마땅히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를 점을 쳐서, 다른 방책을 들어 의심스런 바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복거》라고 하였다.」

《補注》:「詳友丹徒陳祺壽云:『《論語·微子》篇:隱居放言. 集解引包咸云:放, 置也, 不復言世務. 《卜居》云:吁嗟默默兮, 誰知吾之廉貞. 故彥和以放言美之.』按此句下云《漁父》寄獨往之才, 亦言漁父鼓枻而去, 獨往不返也. 陳說甚確.」

《補注》:「상의 친구 단도 진기수가 이르기를 《논어·미자》편에 “숨어 살며 말을 하지 않고 놓아두네”라고 하였는데, 《집해》는 포함의 말을 인용하여 “放은 놓아두다 이다. 세상의 힘쓰는 일을 다시는 말하지 않음이다”라고 하였다. 《복거》에 이르기를 “어허라 침묵할 것이로다, 어느 누가 내 청렴과 정절을 알아주리”라고 하였는데, 유협은 말을 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을 찬미한 것이다.」생각건대, 이 구 아래에 “《어부》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는 재능을 묘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부가 노를 두드리며 가면서, 홀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정확하다.

《札記》:「《卜居》命龜之辭, 繁多不綱, 故曰放言. 放言猶云縱言. 陳解未諦.」放言, 暢所欲言, 不受拘束. 《晉書·夏侯湛傳》:「莊周駘蕩以放言.」

《札記》:「《복거》는 거북에게 점을 치는 말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번다하여 말을 깎아 다듬지 않아서, 멋대로 말한다고 한 것이다. 멋대로 말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고 놓아둔다는) 진기수의 해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말을 놓는다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을 실컷 내뱉어서 엇매이지 않는 것이다. 《晉書·夏侯湛傳》:「장지는 엇매임 없이 실컷 말을 놓아 말했다.」라고 하고 있다. (홍윤기 번역 주:駘蕩(태: 재갈을 벗다. 당: 쓸어버리다.): 엇매임 없이 제멋대로.)

〔六〕王逸《漁父序》:「屈原放逐在江湘之間, 憂愁嘆吟, 儀容變易, 而漁父避世隱身, 釣魚江濱, 欣然自樂. 時遇屈原川澤之域, 怪而問之, 遂相應答。」

王逸《漁父序》:「굴원이 장강과 상수의 사이로 쫓겨나서, 근심걱정으로 한숨쉬며 읊조리었는데, 그 모습이 바뀌어 비쩍 말라있었다. 어부는 세상을 피해 몸을 숨기고서 강가에서 낚시질하며 기꺼이 스스로 즐기었다. 때마침 굴원과 강가에서 만나 그를 보고 이상히 생각하여 물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范注:「孫君蜀丞曰:『《文選》任彦昇《齊竟陵文宣王行狀》注引淮南王《莊子略要》曰:『江海之士, 山谷之人也, 輕天下, 細萬物而獨往者也。』司馬彪注曰:『獨往自然, 不復顧世。』』」

范注:「孫蜀丞군이 이르기를 :『《文選》의 任彦昇《齊竟陵文宣王行狀》에 대한 주로 淮南王의 《莊子略要》가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있다:『강과 바다, 산과 계곡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천하를 가벼이 여기고 만물을 하찮게 여기며 홀로 거니는 사람이다.』司馬彪 주에:『홀로 자연으로 가서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徐勗校云:「『往』, 《楚辭》本作『任』.」《校證》:「案孫說

-160-

是, 徐校未可從.」《楚辭補注》作「獨任之才」, 注云:「一云『獨任』當作『獨往』.」橋川時雄:「按『任』『往』並通, 今從《楚辭》作任, 與下句氣往之往不重.」《莊子·在宥》篇:「獨往獨來」

徐勗이 교감하며 이르기를:「『往』자는 《楚辭》본에는 『任』자로 되어있다.」《校證》:「생각건대, 孫蜀丞의 주장이 옳다. 徐勗의 교감은 따를만하지 않다.」《楚辭補注》에는 「獨任之才」로 되어있고, 주에 이르기를:「어떤 사람은 『獨任』은 『獨往』이 되어야한다고 되어있다.」라고 하였다. 橋川時雄:「생각건대, 『任』자와 『往』자는 나란히 통하며, 이제 《楚辭》를 좇아 『任』자로 하면, 아래 구의 ‘氣往’의 『往』자와 겹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莊子·在宥》篇:「홀로 갔다가 홀로 온다.」

(홍윤기 번역 주-「才」자는 ‘재주’나 ‘재능’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才」자는 「材」의 의미와 통하므로, 「본성/자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대 중국어로는 「才情」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心性」의

의미도 담고 있다.)

05-11 故能氣往轍古〔一〕, 辭來切今〔二〕, 驚采絕艷, 難與並能矣〔三〕.

홍윤기 번역: 그러므로 그 기세는 지나가면서 옛 작품들을 갈아몽개고, 그 수사적 표현은 오늘날에도 딱 맞으니(지극히 현대적이라는 의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문체와 절묘한 아름다움은 더불어 필적하기 어렵다.

〔一〕《榘詮》:『氣往轍古, 言其氣勢一往無前, 足以陵踐古人也. 轍, 《說文》:『車所踐也.』』

《榘詮》:『그 기세는 지나가면서 옛 작품들을 갈아몽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세가 한 번 지나가매 앞에 아무도 없는 듯 달려, 옛 사람을 밟아 몽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轍(력: 바퀴로 갈아몽개다.)은 《설문》에 『수레가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講疏》:『『氣往轍古』是說……風格卓絕, 精神超邁, 度越古人; 『辭來切今』是說《楚辭·離騷》爲一種新興的文體, 在形式方面, 無論文法或修辭, 都非常新艷奇特, 不但吸引當時人的注意, 並能滿足讀者的興趣(切, 合也).』

《講疏》:『그 기세는 옛 작품들을 갈아 몽개다』라는 말은 …… 풍격이 뛰어나고, 정신이 내달려서, 옛사람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이다; 『문사가 오늘날에 딱 맞는다』라는 말은, 《초사·이소》가 일종의 새로운 문체로 쓰여져서, 형식의 측면에서 문법 혹은 수사를 막론하고 매우 신선하고 기특하여, 당시 사람의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독자의 흥취를 만족시킬만하다는 것이다. (切은 합치되는 것이다.)

(홍윤기 번역 주: 『氣』는 작가의 『血氣』로 말미암아 작품에 표현된 『氣勢』)

〔二〕按『切今』當指切合當前的情景. 下文說:『論山水, 則循聲而得貌; 言節候, 則披文而見時.』可證.

생각건대, 『오늘날에 딱 맞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감정상태와 딱 맞음을 가리킨다. 아래문장에서 『산수를 논하매, 소리를 좇아 모습을 얻고; 계절을 말하매, 문장을 드리워 때를 보인다』라는 구절이 증거가 될 수 있다.

〔三〕『難與並能』, 是說別的作者難同他一樣地擅長. 魯迅《漢文學史綱要》第四篇《屈原及宋玉》:『《離騷》之出, 其沾溉文林, 既極廣遠, 評騷之語, 遂亦紛繁. ……楚雖蠻夷, 久爲大國, 春秋之世, 已能賦詩, 《風》《雅》之教, 寧所未習? 幸其固有文化, 尙未淪亡, 交錯爲文, 遂生壯采. 劉勰取其言辭, 校之經典, 謂有異有同, 固《雅》《頌》之博徒, 實戰國之《風》《雅》. 『雖取鎔經義, 亦自鑄偉辭. ……故』

能氣往轅古，辭來切今，驚采絕艷，難與並能。」可謂知言者已。」

「더불어 필적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작가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점을 떨치기 어려움을 말한다. 魯迅은 《漢文學史綱要》第四篇의 《屈原 및 宋玉》에서, 「《이소》의 출현은 문학의 숲을 적시어 널리 멀리 흘러갔으니, 그에 대한 평가의 말들 또한 여러 가지였다. …… 초나라는 비록 오랑캐였으나, 오래도록 대국이었던다. 춘추시기에는 이미 시를 지을 수 있었으니, 《시경》의 교화가 어찌 익혀지지 않았으리오? 다행히도 그 고유한 문화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뒤섞어서 글을 지으니, 마침내 장엄한 문체가 생겨났다. 유럽은 그 언사를 뽑아서 《초사》를 경전에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일컬었으니, 진실로 《시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망나니 무리이지만, 실로 전국시기의 《시경》인 것이다. 『비록 경전의 가르침을 녹여 취하고 있으나, 또한 제 스스로 아름다운 문사를 빚어내고 있다. …… 그러므로 그 기세는 지나가면서 옛 작품들을 갈아뭇개고, 문사는 오늘 날에도 딱 맞으니,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문체와 절묘한 아름다움은 더불어 필적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훌륭한 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以上爲第三段，揭示《楚辭》各篇的藝術特色。

이상은 세 번째 단락으로, 《초사》 각 편의 예술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161-

05-12 自《九懷》以下〔一〕，遽躡其迹〔二〕；而屈、宋逸步〔三〕，莫之能追〔四〕。

간주: 遽(거: 재빠르다/서두르다)

홍운기 번역: 《초사》안에서 왕포의 《구회》이하의 여러 한대 작품들은 그 발자취를 서둘러 좃고는 있으나; 굴원과 송옥의 켜 걸음걸이를 따라 잡을 수는 없었다.

〔一〕 「以」字，橋川時雄：「唐寫本及《楚辭》夫蓉館、汲古閣本作『已』，各本作『以』。」

「以」자에 대하여，橋川時雄은 「唐寫本 및 《楚辭》夫蓉館、汲古閣本에는 『已』자로 되어있고，各 본에는 『以』자로 되어있다.」

王逸《九懷序》：「《九懷》者，諫議大夫王褒之所作也。懷者，思也。……褒讀屈原之文，……追而愍之，故作《九懷》以裨其詞……。」

王逸《九懷序》：「《구회》는 간의대부 왕포가 지은 것이다. 회는 그리워

함이다. …… 왕포는 굴원의 문장을 읽고서, …… 그를 떠올리며 애달파하여 《구회》를 지어 그 문사를 보태었다. ……」

范注:「彦和所云《九懷》(王褒作)以下, 當指東方朔《七諫》、劉向《九嘆》、嚴忌《哀時命》、賈誼《惜誓》、王逸《九思》諸篇. 陳振孫《書錄解題》云:『洪(興祖)氏從吳郡林慮得《楚辭釋文》一卷, 乃古本, 其篇第與今本不同. 首《離騷》, 次《九辯》, 而後《九歌》、《天問》、《九章》、《遠遊》、《卜居》、《漁父》、《招隱士》、《招魂》、《九懷》、《七諫》、《九嘆》、《哀時命》、《惜誓》、《大招》、《九思》.』」

范注:「유협이 말하는 《구회》(왕포작)이하란, 동방삭의 《칠간》·유향의 《구탄》·엄기의 《애시명》·가의의 《석서》·왕일의 《구사》 등의 여러 편을 가리킨다. 진진손은 《서록해제》에서 『홍홍조씨는 오군의 임복에게서 《초사석문》 일권을 얻었는데, 古本으로서, 그 편의 순서는 今本과는 달랐다. 첫 번째가 《이소》, 다음이 《구변》, 이후에 《구가》·《천문》·《구장》·《원유》·《복거》·《어부》·《초은사》·《초혼》·《구회》·《칠간》·《구탄》·《애시명》·《석서》·《대초》·《구사》였다.』」

(二) 「遽」, 急也.

「遽(거: 재빠르다)」는 서두르는 것이다.

《注訂》:「蓋諸家皆上本屈氏之體以作賦, 故云『躡其跡』也. 跡指屈宋, 非指屈氏一人, 因下文有屈宋逸步之語, 屈宋聯稱, 范注不省, 謂專指屈氏者非.」

《注訂》:「여러 작가들은 모두 모두 위로는 굴원의 체제를 바탕으로 부를 지었으므로, 따라서 『그 자취를 좇았다』라고 한 것이다. ‘자취’란 굴원과 송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굴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아랫 문장에 ‘굴원과 송옥의 잔걸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굴원과 송옥을 더불어 칭한 것을 범문란은 살피지 못하였으니 오로지 굴원만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樹詮》:「躡, 繼踵也, 猶言追蹤. 其, 指上述《騷經》、《九章》等十種屈宋之作.」

《樹詮》:「躡(섭: 밟다)은 발꿈치를 이어 밟는 것이다. 추종한다는 것과 같다. 其(기:그)는 위에서 서술한 《소경》《구장》등 열 종의 굴원과 송옥의 작품을 가리킨다.」

(三) 《莊子·田子方》:「夫子奔逸絕塵, 而(顔)回瞠若乎後矣.」 「逸」, 奔跑.

《莊子·田子方》:「공자께서 먼저 한 톨 날리지 않고 빠르게 달리시면, 저

안회는 그저 휘둥그레 그 뒤를 쳐다 볼 뿐입니다.」『逸(일:달아나다)』은 빨리 달리는 것이다.

〔四〕《典論》:「或問:『屈原、相如之賦孰愈?』曰:『優遊按術, 屈原之尚也. 窮侈極妙, 相如之長也. 然原據托譬喻, 其意周旋, 綽有餘度矣. 長卿、子雲, 意未能及已.』」(《北堂書鈔》卷一百引)

《典論》:「어떤 이가 물었다. 『굴원과 사마상여의 부 가운데 누구의 부가 뛰어난가요?』 내가 대답했다. 『넉넉히 거닐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데는, 굴원이 뛰어나고, 화려함을 좇아서 기묘함을 지극히 하는 데는 사마상여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굴원은 비유에 의탁하여 그 뜻이 두루 미치고 있어 너그러이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마상여와 양웅은 그 뜻이 이에 이르지 못합니다. (北堂書鈔》卷一百에서 인용함)

05-13 故其敘情怨〔一〕, 則鬱伊而易感〔二〕; 述離居, 則愴怏而難懷〔三〕; 論山水, 則循聲而得

-162-

貌〔四〕; 言節候, 則披文而見時〔五〕. 是以枚、賈追風以入麗, 馬、揚沿波而得奇〔六〕; 其衣被詞人, 非一代也〔七〕.

간주: 愴怏(창:슬퍼하다. 양:원망하다.)

홍윤기 번역: 굴원과 송옥이 원망의 정서를 펼치면, 억울한 마음에 쉬이 감동 받고; 고국을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면 사무쳐 가슴에 품기 어렵게 하고; 산수자연을 읊으면 그 소리를 따라 그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게 하고; 네 계절의 변화를 말하면 글월을 펼침에 시절이 드러난다. 따라서 매송과 가의는 그 풍격을 좇아 화려한 데로 들어가고, 사마상여와 양웅은 그 물결을 따라 기묘함을 얻었다. 《초사》가 후세 詞人들에게 끼친 영향은 한 시대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一〕 范注:「其, 指屈原諸作.」

范注:「그는 굴원의 여러 작품을 가리킨다.」

斯波六郎:「案『其』指屈、宋.」

斯波六郎:「생각건대 ‘그’는 굴원과 송옥을 가리킨다.」

〔二〕《後漢書·崔寔傳》:「智士鬱伊於下。」注云:「鬱伊, 不申之貌。」鬱伊, 同抑鬱, 心情不舒暢。

《後漢書·崔寔傳》:「지사는 아래에서 자기의 감정을 억눌렀다。」注云:「鬱伊(울이)는 펴지 못하는 모습이다. 「울이」는 억울한 것과 같다. 심정이 펼쳐지지 못한 것이다.

〔三〕離居, 這裏指屈原被流放而離開國都。

離居(리거)란, 여기에서는 굴원이 쫓겨나서 고국의 서울을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

《九歌·大司命》:「將以遺兮離居。」愴快而難懷, 《榘詮》:「謂悲愴悵, 難以爲懷也。……難以爲懷, 亦即不忍卒讀之意。」

《九歌·大司命》의 「장차 떨어져 사는 이에게 줄 것이니.」 「슬픔이 가슴에 사무쳐 품기 어려워라」에 대하여, 《榘詮》은 「슬픔에 정신이 멍해져서 가슴에 품기 어려운 것이다. ……가슴에 품기 어렵다는 것은 차마 마저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홍윤기 번역 주: 「왕일주: 『離居, 謂隱者也. 言已雖出陰入陽, 涉歷殊方, 猶思離居隱士, 將折神麻, 采玉華, 以遺與之. 明已行度如玉, 不以苦樂易其志也.』 離居 떨어져 사는 것은 숨어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자신은 비록 음계를 나와 양계로 들어가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지만, 떨어져 살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을 그리워하여, 신령스런 마를 꺾고 옥다운 꽃을 따서 그에게 준다는 말이다. 자신의 행동이 옥과 같아서 괴롭거나 즐겁다고 해서 쉽게 그 뜻을 바꾸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四〕如《九歌》《九章》中之寫山水, 而寫水者尤多.

예를 들어 《九歌》《九章》가운데에는 산과 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물을 묘사한 것이 더 많다.

〔五〕《春覺齋論文·流別論》第一節:「《涉江》之詞曰:『哀南夷之莫吾知兮, 且余將濟乎江湘. 乘鄂渚而反顧兮, 歛秋冬之緒風. 步余馬兮山皋, 邸余車兮方林. 乘舸船余上沅兮, 齊吳榜而擊汰. 船容與而不進兮, 淹迴水而疑滯. 朝發枉渚兮, 夕宿辰陽; 苟余心之端直兮, 雖僻遠其何傷? 入澗浦余儻何兮, 迷不知吾所如. 深林杳以冥冥兮, 乃猿狖之所居. 山峻高以蔽日兮, 下幽晦而多雨. 靄雪紛其無垠兮, 雲霏霏其承宇. 哀吾生之無樂兮, 幽獨處乎山中. 吾不能變心以從俗兮, 固將愁苦而終窮.』此一段, 眞所謂述離居, 論山水, 言節候, 悉納于小小篇幅中矣. 夫惟朝廷之莫已知, 遂涉江而逝. 然秋冬之風撲面, 迴顧國都, 已在蒼蒼莽莽之中. 秋水漫天, 楚江日暮, 自枉渚至辰陽, 初無托足之所. 于是

深林猿狖, 雨雪凄迷, 其中著一去國之孤臣, 不特此身

-163-

不可安頓, 卽此心亦寧有安頓之處? 又知國家衰敗, 斷無容己之人, 卽一己亦不願變心而從俗. 不待讀《涉江》全文, 只此小小結構, 靜中思之, 在在咸中悲梗。」

《春覺齋論文·流別論》第一節: 「《섭강》에서 이르기를: 『슬퍼라, 남방의 오랑캐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해뜰 녘 나는 장강과 상수를 건너노라. 악지에 올라서 뒤돌아보며, 가을과 겨울의 서늘한 바람에 한숨을 쉬노라. 산의 연못가에 나의 말을 천천히 몰아서, 방림에 나의 수레를 이르게 하노라. 창 있는 배를 타고 원수에 오르고, 오 지방의 노를 저어서 물결을 치고 나아가노라. 배는 느릿느릿 나아가지 않고, 소용돌이에 걸리어 머물러 있구나. 아침에 왕저를 떠나서 저녁에 진양에서 머무노라. 진실로 나의 마음이 바르고 곧으니, 후미지고 멀다한들 어찌 마음 아프리오, 서포에 들어가서 머뭇거리나니, 길을 잃어 내가 가야할 곳을 잃어버렸다. 깊은 숲은 아득하고 어두우니, 원숭이가 사는 곳이라. 산은 험하고 높아서 해를 가리는구나, 아래는 깊고 어두워 비가 많다네. 싸라기눈이 어지러이 날리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네, 구름은 몽게몽게 처마에 닿아 있네. 내 삶에 즐거움이 없음을 슬퍼하노니, 산속에서 숨어 홀로 지내리라. 나는 마음 바꾸어 속세를 따를 수 없으니, 진실로 근심 속에 고생타가 이내 삶을 마치겠지』라고 하였다. 이 단락은 초나라와 떨어져 살면서 산과 강을 이야기하고, 계절을 읊었는데, 작은 편폭 안에 모두 들어 있다. 대저 조정이 그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니 마침내 강을 건너 떠나가고자 한다. 그런데 늦가을의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고개를 돌려 초나라의 서울을 돌아보니, 푸르고 아득한 가운데 드리워 있다. 가을 물결위로 하늘은 가득한데, 초나라 강은 날로 저물어만 간다. 왕저에서 진양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말 머물 곳 없다. 이때에 깊은 숲 속의 원숭이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고, 진눈깨비는 쓸쓸하게 길을 가리는 가운데,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 하나가 드러난다. 그저 이 내 한 몸 홀로 편할 수만은 없으니, 이 내 마음 또한 어찌 편할 곳이 있겠는가? 또한 나라가 쇠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코 자신을 받아주는 이 없는지라, 그렇다고 이 한 몸 또한 마음 바꾸어 속세를 따를 수는 없는 일. 《섭강》의 온 구절을 다 읽지 않고서도, 이 작은 몇 구절만으로도, 고평한 마음 속에 그의 모습이 떠오르니, 곳곳 마다 슬픔이 가득 하다.」

曹學佺批:「山水循聲而得貌, 節候披文而見時, 此極真之文也. 若緯書祇偽, 惑矣, 烏能真!」

曹學佺이 비평하기를, 「산과 강을 읊음에 소리를 좇아 그 모습이 드러나고, 네 계절을 글월로 펼치자 시절이 보인다. 이것은 지극히 진실한 문장이다. 위서의 경우는 거짓을 귀중히 하여, 사람을 미혹시키지만 어찌 진실할 수 있으리오!」

以上指出《楚辭》在抒情和寫景各方面的成就.

이상은 《초사》가 서정과 서경의 각 방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가리키고 있다.

〔六〕《漢書·藝文志·詩賦略論》:「楚臣屈原離讒憂國, 皆作賦以風, 咸有惻隱古詩之義. 其後宋玉, 唐勒, 漢興枚乘, 司馬相如, 下及揚子雲, 競爲侈麗閎衍之詞, 沒其風諭之義.」

《漢書·藝文志·詩賦略論》:「초나라 신하 굴원이 험뜯음을 당하여 나라를 근심하면서 부를 지어 풍자하였는데, 모두 측은한 《시경》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 뒤에 송옥·당륙이 나타났으며, 한나라가 세워지자 매승·사마상여가 뒤를 따랐고, 그 뒤로는 양웅이 다투어 화려함이 넘쳐나는 문사를 지었는데, 풍유의 뜻은 없었다.」

《史記·賈誼列傳》:「誼爲長沙王太傅, 意不自得, 及渡湘水, 爲賦以弔屈原.」

《史記·賈誼列傳》:「가의는 장사왕의 태부가 되었는데, 스스로 뜻을 얻지 못하여, 상수를 건너다가, 부를 지어 굴원을 애도하였다.」

范注:「《漢書·枚乘傳》:『梁客皆善屬辭賦, 乘尤高.』《藝文志》屈原賦類下有枚乘賦九篇, 賈誼賦七篇, 司馬相如賦二十九篇. 《漢書·揚雄傳》:『蜀有司馬相如作賦甚弘麗溫雅, 雄心壯之, 每作賦, 常擬之以爲式.』」

范注:「《漢書·枚乘傳》:『梁나라 빈객들은 모두 사부를 잘 지었는데, 매승이 특히 뛰어났다.』《藝文志》의 굴원부 류 아래에는 매승의 부 아홉 편, 가의의 부 일곱 편, 사마상여의 부 이십 구 편이 있다. 《漢書·揚雄傳》에 『초나라에는 사마상여가 있어 부를 지음에 심히 널리 아름답고 전아함을 머금고 있으며, 웅장한 마음을 잘 표현하였고, 부를 지을 적마다, 사람들은 늘 그의 작품을 흉내 내며 법식으로 삼았다.』」

橋川時雄:「《楚辭》夫蓉館、汲古閣本無『是以』二字. 『詞人』唐寫本作『辭人』. 『沿波』, 循屈宋的餘波.

橋川時雄:「《楚辭》夫蓉館、汲古閣本에는 『是以』 두 자가 없다. 『詞人』은

당사본에는 『辭人』으로 되어있다. 「沿波(연파)」는 굴원과 송옥의 남은 물결을 좇는 것이다.

〔七〕「衣被」, 加惠于人, 這裏指給人以影響.

「衣被(의피)」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05-14 故才高者苑其鴻裁〔一〕, 中巧者獵其豔辭〔二〕, 吟諷者銜其山川〔三〕, 童蒙者拾其香草〔四〕. 若能憑軾以倚〔雅〕〔頌〕〔五〕, 懸轡以馭楚篇〔六〕, 酌奇而不失其眞〔七〕, 翫華而不

-164-

墜其實〔八〕: 則顧盼可以驅辭力〔九〕, 歎唾可以窮文致〔一〇〕, 亦不復乞靈於長卿〔一一〕, 假寵於子淵矣〔一二〕.

간주: 苑(원: 자완-영거시과의 풀/동산) 中巧: 교묘함을 쏘아 맞추다. 憑軾: 수레의 가룻대에 기대다. 顧盼(고반: 돌아보다)

홍윤기 번역: 재능이 드높은 사람은 그 위대한 체제를 동산으로 삼으며, 교묘함을 쏘아 맞추려는 사람은 그 화려한 수사를 사냥하고, 읊조리는 사람은 그 산과 강을 머금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여러 향대나는 풀들을 줍는다. 만약 수레의 가룻대에 기대는 것처럼 《아》와 《송》을 대표로 하는 《시경》에 의지하고, 고삐를 거는 것처럼 《초사》의 여러 편들을 부릴 수 있고, 기묘함을 헤아리면서도 그 진실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꽃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힐끗 되돌아 보는 순간에 힘찬 표현력을 내달릴 수 있을 것이며, 침을 튀며 읊조리는 순간에 문장의 정취를 궁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사마상여에게서 영감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왕포에게서 사랑을 빌지 않아도 될 것이다.

〔一〕「苑」, 梅注:「音鬱」, 唐寫本作「苑」. 趙萬里《校記》:「案唐本是也. 『苑』與『蘊』通. 《廣雅》云:『蘊, 聚也.』是其義」.

「苑(원/울)」에 대하여, 梅注:「발음이 울이다.」唐寫本에는 「苑(원: 나라동산)」으로 되어있다. 趙萬里《校記》:「案唐本이 옳다. 『苑(원)」과 『蘊(은:간직하다)』는 통한다. 《廣雅》에, 『蘊(은)은 무리지어 놓아놓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 뜻이다.]

范注:「苑訓鬱, 訓蘊, 是自動詞, 下列三句中『獵』、『銜』、『拾』三字皆他動詞, 語氣不順, 疑『苑』即『挽』之假字, 《集韻》:挽, 取也. 挽其鴻裁, 謂取鎔屈宋製作之大義, 以自製新辭, 然此非淺薄所能, 故曰『才高者挽其鴻裁』也。」

范注:「苑자는鬱로 훈하기도 하고, 蘊으로 훈하기도 하는데, 자동사이다. 아래에 늘어놓은 세 구 가운데 『獵』、『銜』、『拾』의 세 글자는 모두 타동사이며, 말투가 온순하지 못하니, 『苑』자는 『挽(완:팔)』자의 가차자가 아닌가 의심된다. 《集韻》:挽(완:팔)은 취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체재를 취하였다’는 것은 굴원과 송옥이 지은 작품의 큰 뜻을 녹여 취하였음을 일컫는 것으로, 스스로 새로운 문사를 지었으니, 이는 천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주가 높은 사람은 그 위대한 체재를 팔로 당기었다』라고 한 것이다.」

《校證》:「『苑』, 唐寫本作『苑』, 古通, 《漢書·谷永傳》注云:『苑, 古苑字。』又《百官公卿表》上, 太僕屬官之牧師苑令, 即苑令也. 《管子·水地》篇:『地者, 諸生之根苑也。』舊注:『苑, 圍城也。』皆『苑』、『苑』古通之證. 《詮賦》篇『京殿苑獵』, 以『苑』、『獵』對文, 與此正同. 《雜文》篇云:『苑囿文情。』《體性》篇云:『文辭艱葉, 苑囿其中。』《練字》篇云:『苑囿奇文。』『苑』字義並與此同. 蓋《離騷》一書, 辭藻豐蔚, 多所蘊蓄, 若草木禽獸之苑囿然, 後人多在其中討生活, 所謂『衣被詞人, 非一世也。』《詮賦》篇云『故知殷人輯頌, 楚人理賦, 斯並鴻裁之寶域, 雅文之樞轄也。』亦『苑其鴻裁』之意也.』「鴻裁, 指文章的鴻偉體制。」

《校證》:「『苑』자는 당사본에는 『苑』으로 되어있다. 옛날에는 통하였다. 《한서·곡영전》 주에 이르기를 『苑은 옛 苑자이다.』 또한 《백관공경표》에, 태복은 관리의 모사원령에 속하는데, 바로 원령이다 라고 하였다. 《관자·수지》편에: 『땅은 여러 산 것들의 뿌리내리는 동산이다.』라고 하였는데, 옛주에는: 『완은 동산으로 된 성이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원』자와 『완』자가 옛날에는 서로 통하여 쓴 증거이다. 《전부》편에서는 『京都·宮殿·庭園·狩獵(을 읊은 賦)』에서는 『원』과 『렵』을 대문으로 쓰고 있으니 이와 같이 올바르다. 《잡문》편에서 이르기를: 『풍부한 문학의 동산』이라 하였고, 《체성》편에서는 『문학작품에 관한 뿌리와 잎새같은 모든 것이 모두 이 여덟 가지 범주의 동산에 들어 있다.』라고 하였고, 《연자》편에서는 『문학동산의 기이한 문체』라고 하였으니 『원』자의 의미가 이와 같다. 대저 《이소》의 문사는 풍부하고 무성하여 함축미가 있다. 예를 들어 풀나무짐승의 동산이 그러하니, 후세 사람들 대부분이

《이소》의 문사에서 생활을 찾았다. 이른바 『사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한대에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이것이다. 《전부》편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은나라 사람의 후세가 모아놓은 《송》이나, 초나라 사람이 지은 부(는 모두가 결론에 해당하는 란이 있었음)를 알 수 있다.) 이들 부는 장편부에 속하며, 아정한 문사의 지도리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위대한 작품을 동산으로 삼아』의 뜻이 이것이다. 『홍제』는 문장의 위대한 체제이다.

潘重規《唐寫文心雕龍殘本合校》(以下簡稱「《合校》」):『《漢書·谷永傳》師古注云:『苑古苑

-165-

字。』苑固字，六朝人往往書作『苑』，此苑卽『範』也。苑圃用作動詞，蓋範圍包括之意。《詮賦》篇云:『故知殷人輯頌，楚人理賦，斯並鴻裁之寰域，雅文之樞轄。』『才高者苑其鴻裁』，謂才高者能盡得其體製也。」

반중규《唐寫文心雕龍殘本合校》에 (앞으로는 「《合校》」라고 간단히 부른다.):《한서·곡영전》에 안사고 주에 이르기를 『苑자는 옛苑자이다』苑圃라는 글자는 육조 사람들이 자주 『苑』자로 썼는데, 이苑자는 『범위』의 뜻이다.苑圃는 동사로 쓰여 범위를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전부》에 이르기를:『은나라 사람의 후세가 모아놓은 《송》이나, 초나라 사람이 지은 부(는 모두가 결론에 해당하는 란이 있었음)를 알 수 있다.) 이들 부는 장편부에 속하며, 아정한 문사의 지도리가 된다.』라고 하였고, 『재주가 좋은 사람은 그 위대한 체제를 동산으로 삼아』는 것은 재주가 좋은 사람은 그 체제를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二) 橋川時雄:『夫蓉館本『中』作『志』，時按作『中巧』是。』《札記》:『中巧，猶言心巧。』斯波六郎:『案此『中』字爲『中的』之『中』，喻射。故下用『獵』字。梅音『中，去聲』，亦作『中的』解。』

橋川時雄:『夫蓉館本에는 『中』자가 『志』자로 되어있다. 교천시웅 본인이 생각건대, 『中巧』가 옳다.』《札記》:『中巧는 마음의 교묘함을 말하는 것과 같다.』斯波六郎:『생각건대, 이 『中』자는 『가운데를 맞추다』의 『中』으로, 쏘아 맞추는 것을 비유한다. 따라서 아래에는 『獵』자를 썼다.梅씨의 말에 『中(중)은 去聲』이며, 또한 『가운데를 맞추다』로 풀이한다.』홍윤기 번역 주: 『中巧者』자의 『中』자

의 의미는 여러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1. '마음'의 뜻: 「마음이 교묘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의 뜻. 작가의 창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

2. '중간'의 뜻: 「중간 수준의 교묘한 사람은」의 뜻. 「才高者」「中巧者」「吟諷者」「童蒙者」는 《초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이르기까지 각기 다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간'의 뜻을 가지고 있다.

3. '쏘아 맞추다'의 뜻: 「교묘함을 쏘아 맞추려는 사람은」의 뜻. 전체적인 비유가 공간적 배경을 위주로 하면서 '사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쏘아 맞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三] 按「銜」有含咏意, 如「含英咀華」.

생각전대 「銜」자는 머금고 읊조리다의 뜻으로 「꽃잎을 머금고 씹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講疏》:「『吟諷者銜其山川』是說諷誦欣賞的人, 可以在《楚辭》的作品……中體會到寫景的樂趣。」

《講疏》:「『읊조리는 사람은 그 산천을 머금는다』라는 것은 읊조려 감상하는 사람은 《초사》의 작품에서……묘사된 풍경의 흥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는 의미이다.

[四] 《易·蒙》:「匪我求童蒙, 童蒙求我。」正義:「童蒙, 闇昧之意。」「捨其香草」, 謂捨取其中香草的比喻. 王逸《離騷經序》:「善鳥香草以配忠貞」. 楊批:「捨其香草, 大奇句.」「童蒙, 啓蒙的童子. 《講疏》謂「捨其香草」是說在《楚辭》的作品中「學習到各種博物物的知識, 並引孔子的語說學《詩》可以「多識於鳥獸草木之名」(《論語·陽貨》篇).

《易·蒙》:「匪我求童蒙, 童蒙求我. 내가 어리석은 아이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아이가 내게서 찾는다」. 正義:「어리석은 아이란 어두컴컴하여 어둡다는 뜻이다」「그 향초를 줍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향내나는 풀을 줍는다는 비유이다. 王逸《離騷經序》:「착한 새와 향내나는 풀로 충성과 정절에 비유하고」. 楊씨가 비평하기를:「그 향내나는 풀을 줍는다는 구절은 매우 기묘한 구절이다.」「童蒙(동몽)은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할 아이이다.《講疏》에서 일컫는 「그 향내나는 풀을 줍는다」는 구절은 《초사》의 작품 가운데 「각종의 여러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시경》을 공부하면 「새·짐승·풀·나무의 이름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魯迅《摩羅詩力說》二:「惟靈均將逝, ……則抽寫哀怨, 鬱爲奇文. ……然中

亦多芳菲悽惻之音，而反抗挑戰，則終其篇未能見，感動後世，爲力非強。劉彥和所謂『才高者苑其鴻裁，中巧者獵其艷辭，吟諷者啣其山川，童蒙者拾其香草』，皆著意外形，不涉內質。孤偉自死，社會依然。四語之中，函深哀焉。」(《墳》，《全集》第一卷)

魯迅《摩羅詩力說》二:「굴원이 장차 죽으려 하는데……슬프고 원망하는 마음을 뽑아 쓰니 무성히 기묘한 문장이 되었다.……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는 향내가 나면서도 슬픈 내용이 많았으나, 반항하고 도전하는 내용은 그 작품이 다하도록 볼 수 없었으니, 후세를 감동시키었으나 힘이 강력하지 못하다. 유헬은 『재주가 높은 사람은 그 위대한 작품을 동산으로 삼았고, 교묘함을 맞춰 쓰려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문사를 사냥하였고, 읊조리는 사람은 그 산과 강을 머금었으며, 어리석은 자는 그 향내나는 풀을 주웠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초사》의 바깥모습을 밝힐 뿐, 안의 내용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홀로 위대하다 여겨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으나 사회는 변한 것이 없었다. (유헬의) 네 가지 부류에 대한 말 가운데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있다.」(《墳》，《全集》第一卷)

[五] 《校注》:「《左傳》僖公二十八年:『子玉使芻犢請戰，曰:『請與君之士戲，君馮軾而觀之。』』釋文:

-166-

『馮，皮冰反。』『馮軾，靠在車前橫木上，表示尊敬。『倚《雅》《頌》，倚重《雅》《頌》，而《楚辭》不過是『《雅》《頌》之博徒』。

《校注》:「《左傳》僖公二十八年:『(초나라의) 子玉은 大夫 芻犢을 시켜 싸움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당신의 무사와 힘겨루기 놀이를 요청하오니, 당신께서는 수레의 가로대에 기대어 구경이나 하시지요.』』釋文에:『馮(빙: 기대대)은 그 발음이 皮와 冰의 反切이다.』『馮軾(빙식)은 수레 앞의 가로대에 기대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시경》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시경》에 의지하는 하였지만, 《楚辭》는 『《시경》의 입장에서 보면 망나니 무리』에 해당된다.

[六] 此句意謂有節制地來駕御《楚辭》，也就是有選擇地學習《楚辭》，欣賞《楚辭》。

이 구의 뜻은 절제하여 《초사》를 부리며, 선택적으로 《초사》를 배우고, 《초사》를 감상함을 의미한다.

[七] 《札記》:「彦和論文, 必以存眞實爲主, 亦鑑于楚艷漢侈之流弊而立言. 其實屈宋之辭, 辭華者其表儀, 眞實者其骨幹, 學之者遺神取貌, 所以有僞體之譏。」

《札記》:「유협의 글은 진실을 보존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초나라의 염려하고 한나라의 화려한 폐단을 살피 비평하며 말한 것이다. 사실 굴원과 송옥의사를 보게 되면, 문사가 화려한 사람은 그 겉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진실한 사람은 그것을 뼈대로 삼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쏟아 모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된 체제를 나무라는 것이 있다.

《校注》:「『其眞』, 唐本作『居貞』. 按『貞』字是, 『居』則非也。」

《校注》:「『其眞』은 당사본에는 『居貞』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貞』자가 옳고, 『居』자는 틀리다.」

《校釋》:「貞者, 正也. 對奇而言貞, 與實對華而言同.」又「舍人論文, 每反復于奇貞華實之間. 奇華者, 采之外彰者也. 貞實者, 道之內蘊者也. 屈子『取鎔經旨』, 故不失其貞, 不墜其實. 屈賦『自鑄偉詞』, 故可酌其奇, 可翫其華.」

《校釋》:「貞(정:곧다)은 올바른 것이다. 기묘함을 대하면서도 말이 바른 것이고, 실제와 더불어 화려함을 마주하면서도 말은 한결같은 것이다」 또 「유협의 문장 비평은 매번 기묘하되 올바른 것·화려하되 실제적인 것 사이에서 반복된다. 기묘하고 화려하다함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빛남을 깨는 것이요, 올바르고 실제적인 것이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굴원이 『경전의 취지를 녹이어서 취하였다』라는 것은 그 올바름을 잃지 않았고, 그 진실함을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굴원의 부는 『제 스스로 아름다운 문사를 빛어내었으니』, 그 기묘함을 짐작할 수 있고, 그 화려함을 즐겨 볼 수 있다.」

《定勢》篇:「舊練之才, 則執正以馭奇; 新學之銳, 則逐奇而失正; 勢流不反, 則文體遂弊.」又謂:「然淵乎文者, 並總群勢; 奇正雖反, 必兼解以俱通.」

《定勢》篇:「오래도록 숙련된 재능 있는 문인은 올바름을 틀어쥐고서 신기함을 맘껏 부릴 수 있지만, 새로 배운 날카로운 문인은 기이함을 쫓다가 올바름을 잃어버린다. 이런 추세로 흘러가다가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장의 大體는 마침내 망가지고 말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그러나 글쓰기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세를 아울러 총괄해야한다; 기묘함과 올바름은 비록 상반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둘 다를 이해하여 통달해야한다.」

[八] 《老子》三十八章:「處其實, 不居其華.」

《老子》三十八章:「그 실재에 처하되, 그 화려함에 머물지 않는다.」

「翫」, 橋川時雄:「《楚辭》夫蓉館、汲古閣本作『玩』。時按翫, 習也;玩, 弄也。《楚辭·哀時命》『誰可與玩此遺芳』王注:玩, 習也。此假玩爲翫也。」按《定勢》篇云:「效《騷》命篇者, 必歸艷逸之華。」但是不能損害作品內容的眞實性。

「翫(완:가지고 놀다)」에 대하여, 橋川時雄:「《楚辭》夫蓉館、汲古閣本에는 『玩(완:가지고 놀다)』로 되어있다. 교천시옹 본인이 생각건대 翫은 익히는 것이며, 玩은 가지고 즐기며 노는 것이다.《楚辭·哀時命》『誰可與玩此遺芳 누가 가히 더 붙어 이 그윽한 향내를 익힐 것인가』 왕일 주: 玩은 익히는 것이다. 이것은 ‘玩자를 빌어 翫자로 삼은 것이다. 생각건대, 《定勢》篇에:『《초사》를 모방한 작품은 반드시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나, 작품내용의 진실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春覺齋論文·流別論》第一節:「《文心雕龍·辯騷》篇曰:『酌奇而不失其眞, 翫華而不墜其

-167-

實。」是言眞知《騷》者也。枚、賈得其麗, 馬、揚得其奇, 此私淑者之徑造其室也。然其敘情怨, 述離居, 論山水, 言節候, 綜此四者, 披而讀之, 瞑目遐想, 良有不可自解者。……

「乃知《騷經》之文, 非文也, 有是心血, 始有是至言. 賈誼《惜誓》, 《九嘆》, 皆有所感, 故聲悲而韻亦長. 東方、嚴忌諸人習而步之, 彌不及矣. 後人引吭佯悲, 極其摹仿, 亦咸不能似, 似者唯一柳柳州. 柳州《解崇》、《懲咎》、《閔生》、《夢歸》、《囚山》諸賦, 則直步《九章》, 而《宥蝮蛇》、《斬曲几》、《憎王孫》, 則又與《卜居》、《漁父》同工而異曲. ……卽劉勰所謂眞也, 實也;不實不眞, 佳文又胡從出哉!」

《春覺齋論文·流別論》第一節:「《文心雕龍·辯騷》篇에, 『기묘함을 헤아리면서도 그 진실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꽃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초사》를 진실로 아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매승과 가위는 그 아름다움을 얻었고, 사마상여와 양웅은 그 기묘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개인적으로 경모하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짐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원망에 찬 정서를 펼치고 조국을 떠나감을 말하고, 산수를 읊으며, 계절을 말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종합하여 그것을 펼쳐 읽노라면, 눈을 감고서

도 아득히 떠오르노니, 진실로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생기게 된다. ……

「《이소》의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 있는 것은 마음의 궤이니, 처음부터 있는 것은 지극한 말이다. 가의의 《석서》, 《구탄》은 모두 감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까닭에 소리는 비통하면서도 운은 또한 길다. 동방삭과 엄기 등의 여러 사람은 이를 익혀 좃았으나 더욱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후세사람들이 목을 잡아당겨 슬픈 척 하면서, 지극히 그 흥내를 내었으나, 또한 모두 닳지 않았으니, 닳은 사람이 있다면 오로지 유종원이다. 유종원의 《海嶠》·《懲咎》·《閔生》·《夢歸》·《囚山》의 여러 부는 곧장 《九章》에 이르고 있고, 《宥鱗蛇》·《斬曲几》·《憎王孫》은 또한 《卜居》·《漁父》와 함께 공교로움을 같이하면서도 굽이를 달리한다. …… 즉 유희이 진실하다 라고 일컫는 것은 사실됨을 일컫는 것이니, 사실적이지 않다면 진실할 수 없고, 진실하지 않다면 빼어난 문장이라고 하여 또한 어찌 좃아나서리오!

「貞」指「規諷之旨」、「比興之義」，亦即「同于《風》《雅》」者，是《楚辭》與《詩經》精神相通之處。「奇」指「詭異之辭」、「譎怪之談」，亦即「異乎經典」者，是《楚辭》所獨具的光怪陸離的幻想形式。「華」是「詞采」，「實」是作品的思想內容。

「올바름」이란 「규풍의 뜻」·「비흥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한 「《시경》과 같은」 것이다. 바로 《초사》와 《시경》정신이 서로 통하는 곳이다. 「기묘함」이란 「기이한 문사」·「괴이한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한 「경전과 다른」 것이다. 바로 《초사》만이 지니고 있는 기괴한 환상형식이다. 「화려함」은 「언어의 선택」이며, 「실제」는 작품의 사상내용이다.

[九] 《合校》:「唐寫本『盼』作『면(眄)』。案六朝人眄字，俗寫作『면(眄)』，면(眄)字是。」

《合校》:「唐寫本에는 『盼』자가 『면(眄)』자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육조 때 사람들은 『眄』字를 속자로 『면(眄)』자를 썼는데, 면(眄)字가 옳다。」

《斟詮》:「顧眄，還視曰顧，衰視曰眄。」

《斟詮》:「顧眄(고면)에 대하여, 돌아보는 것을 고라하고 비껴보는 것을 면이라고 한다.《校注》:「생각건대 『眄』『盼』『盼』 세 글자는 형체와 발음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王觀國《學林》卷十의 『盼眄盼』條에는 이들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세 글자는 글자 생김새가 가까워서, 매번 뒤섞여 잘못쓰고 있다. 여기에는 마땅히 『眄』자로 써야 옳다.」『驅』，謂驅遣。『驅』(구:몰다)는 말을 채찍질하여 모는 것이다.『辭力』，謂文辭氣力。『辭力』은 문사의 기력을 말한다.

〔一〇〕「歎唾」, 《莊子·秋水》篇:「子不見夫唾者乎? 噴則大者如珠, 小者如玉。」因而有「歎唾成珠玉」一語。

「歎唾(해타)」에 대하여, 《莊子·秋水》篇:「그대는 침을 튕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재채기를 해서 뱀어내면 큰 것은 구슬 같고 작은 것은 옥같아」에서 「재채기를 튕겨 구슬을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斟詮》:「歎唾之聲甚微, 因假以喻言語聲之輕者。」此處講輕聲吟誦自己的作品。「文致」, 文章的情趣。

《斟詮》:「기침을 콜록거리거나 침을 뱀는 소리는 참으로 작아서, 이를 빌어 언어의 소리가 가벼움을 비유한 것이다。」이것은 자신의 작품을 가벼운 소리로운조리는 것을 말한다. 「文致」, 는 문장의 정취이다. 흥윤기 주 【歎唾】 1. 比喻聲音, 談吐. 2. 形容不費力氣或時間短暫。

-168-

〔一一〕《左傳》哀公二十四年:「寡人欲徼福於周公, 願乞靈於臧氏。」「乞靈」, 本指祈求神靈賜以援助, 後泛指借助于外物。

《左傳》哀公二十四年:「과인은 노나라의 주공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며, 대대로 전승을 세운 장씨로부터 신령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신령께 빌다」는 것은 본래 신령에게 원조를 베풀 것을 기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후에 외물로부터 도움을 비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一二〕《左傳》昭公四年:「君若苟無四方之虞, 則願假寵以請於諸侯。」杜注:「欲借君之威寵以致諸侯。」范注:「王褒, 字子淵, 宣帝時辭家之首, 故彥和云然。《北堂書鈔》九十七引桓譚《新論》云:『余少時好《離騷》, 博觀他書, 輒欲反學。』亦此意也。」

《左傳》昭公四年:「임금께서 만약 진실로 사방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면, 임금의 은총을 빌어 여러 후들에게 맡길 것을 요청하옵니다。」杜注:「임금의 위세와 은총을 빌어 여러 후들에게 맡길 것을 바라는 것이다。」范注:「왕포는 자가 자연으로 선제 때에 사부가의 우두머리였기에 유협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북당서초》 97에 환담의 《신론》을 인용하여 말하기를:『내가 젊었을 적에 《이소》를 좋아하였는데, 그의 글을 널리 보다가 문득 배움을 돌이키고 싶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이다。」

第四段, 講《楚辭》對後代的景響. 進而總結出效《騷》命篇的基本原則.

제 네 번째 단락으로, 《초사》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고, 나아가 《초사》를 모방하는 작품들에 대한 기본원칙을 총결하였다.

05-15 贊曰:不有屈原,豈見《離騷》[一]!驚才風逸[二],壯志煙高[三].山川無極,情理實勞[四].金相玉式[五],艷溢鎔毫[六].

간주: 勞=遼(료: 멀다) 鎔毫(치: 저울눈, 호: 터럭)

홍윤기 번역: 노래하노라: 굴원이 없었다면, 어찌 《이소》가 나왔을 것인가! 놀라운 재주는 바람이 달리는 듯, 장대한 뜻은 구름이 하늘 높이 떠있는 듯, 산과 강이 아득하듯, 사상과 감정은 실로 아득히 멀고도 넓다. 금을 바탕으로 삼고 옥을 장식으로 삼은 듯하여, 고운 모습 저울눈이나 터럭 끝 같은 작은 구석구석까지 넘치는구나.

[一] 唐寫本「原」作「平」. 此謂《離騷》由一個偉大作家所創造.

唐寫本에는 「原」자가 「平」평자로 되어있다. 《이소》가 위대한 작가가 지은 것임을 말한다.

[二] 此謂驚人才華, 如飄風那樣奔放.

이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화려해서,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게 날리는 것이다.

[三] 范注:「『壯志』, 唐寫本作『壯采』, 是.」《校注》:「《詮賦》篇『時逢壯采』, 亦以『壯采』連文.」鈴木云:「洪本校注云:『煙一作雲.』」《考異》:「騷體志鬱而文盛, 『志』字非, 從唐寫本作『采』是.」《勘證》:「謂其壯麗之辭采, 若煙飛雲翔也.」

范注:「『壯志』는 당사본에 『壯采』로 되어있는데, 옳다.」《校注》:「《詮賦》篇편에 『時逢壯采』로 되어있어서, 또한 『壯采』로써 글을 잇고 있다.」鈴木은:「홍홍조 교주본에 이르기를: 『煙』은 한 편에서는 『雲』으로 되어있다.」《考異》:「騷體의 뜻은 막히었으면서도 그 글은 성대하니, 『志』자는 틀리고, 당사본을 좇아서 『采』로 쓰는 것이 옳다.」《勘證》:「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언어표현이 마치 연기가 날아오르듯 구름이 높이 떠있는 듯한 것을 일컫는다.」

[四] 《物色》篇:「山林臯壤, 實文思之奧府. …… 然屈平之所以能洞鑿風騷之情者, 抑亦江山之助乎?」無窮, 無極의山川, 均賴作者運用匠心來表達, 使主客觀交融爲一, 故云「山川無極, 情理

-169-

實勞」.

《物色》篇:「산 숲 늪 가의 땅은 실제로 문학적 상상의 보고다. …… 굴원이 《시경》의 정취를 살피 《이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강과 산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무궁’은 끝없는 산천이다. 이런 산천은 모두 작자가 상상력을 운용함으로써 표달되는데, 주객관교용으로 하나가 된다. 따라서 「산과 강은 끝없으니, 감정은 실로 아득하다」고 한 것이다.

《樹詮》:「言屈賦所敘寫之山川, 固然悠遠無極; 所抒發之情理, 實亦煞費憂勞也。」郭注:「今案勞當訓遼, 聲之誤也. 《詩·漸漸之石》:『山川悠遠, 非其勞矣.』箋云:『其道里長遠, 邦域又勞勞廣闊.』正義:『鄭以勞爲遼遼, 言廣闊之意.』又:『廣闊遼遼之字, 當以遼遠之遼, 而作勞字者, 以古之字少, 多相假借. 詩人口之咏歌, 不專以竹帛相授, 音既相近, 故遂用之. 此字義自得通, 故不言當作遼也.』劉彥和正用《詩》之鄭箋.」此又一解, 贊美屈原的襟懷和感情像山川一樣遼闊.

《樹詮》:「굴원의 부가 묘사하고 있는 산과 강은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펼쳐내는 감정은 또한 걱정근심이 극진하여 수고롭다.」郭注:「이제 생각건대 ‘勞(로: 수고롭다)’자는 ‘遼(료: 멀다/아득하다)’자로 혼하는 마땅하며, 발음이 비슷하여 생긴 잘못이다. 《詩·漸漸之石》:『산과 강은 아득하기만 하니, 수고롭지 않을 소냐.』에 대하여 전은 『그 길과 마을이 길고 멀어, 나라와 지역 또한 수고로이 드넓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정의는 『정나라에서는 勞를 遼遼로 삼으니 드넓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아득하고도 넓다는 글자는 마땅히 아득히 멀다의 遼를 써야 한다. ‘勞’자를 쓰는 것은 옛날에는 글자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들 서로 빌려 썼다. 시인이 입으로 읊조리는 노래들은 대나무나 비단에 받아 적어 서로 전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도 서로 비슷하여 그 글자를 쓴 것이다. 이 글자는 뜻이 절로 통하기 때문에, 마땅히 료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유희은 《시경》의 정전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굴원의 가슴과 감정이 산과 강처럼 아득히 넓음을 찬미하는 것이다.

[五] 《校注》:「按《詩·大雅·棫樸》:『金玉其相.』毛傳:『相, 質也.』《左傳》昭公十二年:『其詩曰:『祈昭之愔愔, ……式如玉, 式如金.』』」

《校注》:「생각건대, 《詩·大雅·棫樸》:『금과 옥을 바탕으로 삼아』毛傳:

『相(상)은 바탕이다.』《左傳》昭公十二年:『그 시에 《祈昭曲》부드럽고 부드러워,…… 그 법도가 옥과 같고, 금과 같네.』』

《樹詮》:『金相玉式, 言其情辭兼備, 有以如金爲質, 以玉爲飾也. 王逸《楚辭章句序》:『所謂金相玉質, 百世無匹, 名垂罔極, 永不刊滅者矣.』……式, 飾式, 法式.』

《樹詮》:『금을 바탕으로 삼고 옥을 장식으로 삼는다 함은 그 감정과 문사가 겸비됨을 말한 것으로, 마치 금으로 바탕을 삼고 옥으로 장식을 삼는다는 것이다. 왕일은 《초사장구서》에서: 『이른바 금와 옥을 바탕으로 삼았으니 백대가 지나더라도 필적할 만한 작품이 없어 그 명성이 망극에 드리워 영원히 깎아낼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식은 수식, 법식이다.』

[六] 橋川時雄:『唐寫作『艷逸鎔毫』, 《楚辭》夫蓉館、汲古閣本作『艷溢鎔毫』. 徐校云:改本『艷溢鎔毫』, 又云:一作『絕艷稱豪』. 梅本云:元作『絕益稱豪』. 時按諸本紛雜, 難得一是. 然唐寫本、《楚辭》, 僅差一字. 逸、溢兩通. 『溢』字妥. 他本異同, 皆出摸索, 不問之可也.』

橋川時雄:『당사본에는 『艷逸鎔毫』라고 되어있고, 《楚辭》夫蓉館、汲古閣本에는 『艷溢鎔毫』로 되어있다. 徐씨가 교정을 달며 말하기를: 바뀐 판본에는 『艷溢鎔毫』되어있고, 또 어느 판본에는 『絕艷稱豪』라고 되어있다. 梅本에 이르기를: 元刻本에는 『絕益稱豪』라고 되어있다. 교친시웅 본인이 생각건대 여러 판본이 어지러워서 어느 하나가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당사본과 《楚辭》는 겨우 한 글자가 차이 난다. ‘逸’、‘溢’자는 둘이 통한다. 『溢』자가 타당하다. 그 밖의 판본의 차이는 모두 찾아내었으니 묻지 않아도 된다.』

《樹詮》:『言其片詞隻字, 皆艷采四溢, 美不勝收也. 鎔毫, 極言其細微. 陸機《文賦》:『考殿最於鎔銖, 定去留於毫芒.』(五臣)注:『濟曰:『鎔銖, 秤兩也. 毫, 細毛也. 皆至微小者也.』』

《樹詮》:『그 구절과 문자들이 모두 화려하여 사방으로 넘쳐나서 아름다움을 거둘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鎔毫(치호)는 그 세미함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육기는 《문부》에서 『극히 미세한 것에서도 우열을 살펴보고, 털오라기 처럼 섬세한 것에서도 뽀 것인가 둘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五臣 注):『濟가 이르기를: 『鎔銖(치수)는 저울의 무게단위이다. 毫(호)는 가는 털이다. 모두 지극히 작은 것이다.』』

-170-

按《時序》篇云：「屈平聯藻于日月，宋玉交彩于風雲。觀其艷說，則籠罩《雅》《頌》，故知曄燁之奇意，出乎縱橫之詭俗也。」

생각건대 《時序》篇에서 이르기를：「굴원은 아름다운 표현을 엮어서 해와 달과도 그 빛을 다투었고, 송옥은 고운 빛깔을 섞어서 바람과 구름을 그려내었다. 이들의 고운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경》을 뒤덮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부신 기이한 뜻은 종횡가류의 궤변적인 습속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文心雕龍義證》 간칭표

- 《講疏》：唐亦男《文心雕龍講疏》
《考異》：張立齋《文心雕龍考異》
「郭注」：郭晉稀《文心雕龍注譯》
《校釋》：劉永濟《文心雕龍校釋》
《校注》：楊明照《文心雕龍校注拾遺》(一九八二年增訂版)
《校證》：王利器《文心雕龍校證》
「橋川時雄」：橋川時雄《文心雕龍校讀》
「紀評」：紀昀評
「梅注」：(明)梅慶生注
《文論選》：郭紹虞主編《中國歷代文論選》
「范注」：范文瀾《文心雕龍注》
《補注》：李詳《文心雕龍補注》
「斯波六郎」：斯波六郎《文心雕龍札記》
「疏證」：金毓黻《文心雕龍史傳篇疏證》
《新議》：周汝昌《文心雕龍隱秀篇舊疑新議》
「王金凌」：王金凌《文心雕龍文論術語析論》
《雜記》：葉長青《文心雕龍雜記》
《注訂》：張立齋《文心雕龍注訂》
「周注」：周振甫《文心雕龍注釋》
《樹詮》：李日剛《文心雕龍樹詮》
《集釋稿》：饒宗頤《文心雕龍集釋稿》
《集注》：顏虛心《文心雕龍集注》
《綴補》：王叔珉《文心雕龍綴補》
《札記》：黃侃《文心雕龍札記》
《合校》：潘重規《唐寫文心雕龍殘本合校》
「黃注」：黃叔琳注
《訓故》：(明)王惟儉《文心雕龍訓故》